김정일장군님은
조국통일의 구성!
김정일장군님을
통일대통령으로!

6.15공동선언은
조국통일의 이정표!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열자!

2002년 2월 25일 월요일 ≪통일아리랑≫편집위원회 25호

부쉬패거리와는 상종하지 않을 것이다

조선중앙통신 론평 - 주체 91, 2월 23일

보도된바와 같이 ≪악의 축≫론을 들고 나와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미국대통령 부쉬가 19일부터 21일까지 남조선을 행각하였다.

부쉬는 이번 행각기간 우리에 대한 험담만을 일삼다 못해 나중에는 우리 제도의 ≪변경≫에 대해 운운하고 지어는 우리의 최고수뇌부를 악랄하게 중상모독하는 망동까지 부렸다.

우리는 부쉬가 우리의 최고수뇌부를 함부로 중상하고 수령, 당, 대중이 운명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가장 존엄 높고 자주적인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의 정치체제에 대한 ≪변경≫설까지 들고 나온데 대하여 절대로 용서할수 없다.

부쉬는 자기의 망발로써 한 나라의 대통령은 고사하고 초보적인 리성마저 갖추지 못한 혐오감을 금할수 없는 정치적 미숙아임을 다시한번 드러 내 보였다.

남조선의 여기저기를 돌아 치며 떠들어 댄 그의 망발은 우리를 ≪악의 축≫으로 규정한 ≪일반서신연설≫의 복사판이다.

한마디로 평하여 부쉬의 남조선행각은 남조선을 미국주도의 ≪반테로련합≫의 부속물로 얽매여 놓고 남조선의 반통일세력을 부추겨 민족대단결의 기운을 억누르는 한편 현지에서 전쟁도발준비상태를 최종검증하기 위한 전쟁행각이였다.

우리를 군사적으로 제압하기 위한 기도를 로골적으로 드러낸 부쉬의 폭언으로 하여 조선반도의 군사정치정세는 다시금 전쟁접경에로 치닫게 되였으며 6.15북남공동선언에 따라 전진되던 북남관계개선에는 엄중한 장애가 조성되게 되였다.

또한 간과할수 없는것은 부쉬가 군복차림으로 군사분계연선을 돌아 치며 우리의 신성한 혁명무력을 ≪악한≫들이라고

험담하며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정권들이 가장 위험한 무기로 위협하는것을 결코 허용하지 않겠다≫고 폭언한것이다.

부쉬가 우리 공화국을 ≪가장 위험한 정권≫으로 락인하고 ≪대량살륙무기전파≫설을 운운한것은 아프가니스탄전쟁의 불길을 조선반도로 옮기려는 기도를 로골적으로 드러 내 놓은것이다.

우리의 미싸일정책이 평화적성격을 띠고 있으며 우리의 자주권을 존중하는 그 어느 나라에도 위협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은 세계가 공인하고 있는 사실이다.

세계를 수십번 파괴하고 남을 저들의 핵 및 미싸일무력은 아무런 위협도 아닌 ≪억제력≫으로 되고 미국의 현실적침략위협에 대처하여 민족적존엄과 자주권을 지키는 우리의 자위적국방력은 ≪위협≫이 되고 ≪테로용≫으로 된다는 부쉬의 론리야말로 전형적인 불량배, 테로왕초의 깡패식론리이다.

부쉬가 들고 나온 우리와의 ≪대화문제≫역시 그렇다.

우리 인민이 선택한 제도를 힘으로 변경시켜 보려는 부쉬의 대화타령의 진속이 무엇인가는 더 론의할 가치조차 없는 것이다.

부쉬가 노리고 있는것은 ≪대화≫를 제의했다는 명분이나 세워 놓고 우리가 대화를 거부하고 있기때문에 조미관계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을 국제사회에 심어 주어 우리를 더욱 고립시켜 보려는 어리석은 술책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의 정치체제를 변경시켜 보려고 침공의 구실만을 찾고 있는 부쉬패거리와는 더는 상종하지 않을것이다.

우리 제도를 인정하려 하지 않는 자들과의 대화는 필요 없다.

명백히 하건대 우리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감히 전쟁을 도발해 온다면 일격에 섬멸해 버릴수 있게 자위적국방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것이다.

부쉬와 그 일당은 상대방을 제압할 ≪힘≫이 저들에게만 있는것이 아니라는 것을 똑똑히 알고 무모한 광증을 부리지 말아야 한다.

철도, 발전, 가스 등 3사노조 총파업 돌입

전국철도노조와 한국발전산업노조, 한국가스공사 노조 등 3개 공공부문 노동조합의 총파업이 25일 아침 4시부터 시작됐다.

25일 새벽 4시 30분 이들 3개부문 노동조합 위원장은 서울 명동성당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정부와의 노정 타협은 사실상 실패로 끝났으며 전면 무기한 공동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선언했다. 지난 24일 오후부터 25일 새벽까지 서울 명동 로얄호텔 등지에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정부 관계자와 노정 대타협을 위한 협상이 진행됐지만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철회를 주장한 노조와 민영화는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정부와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못한채 노정간 극적 대타협이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논평

1 부쉬패거리와는 상종하지 않을 것이다 – 조선중앙통신 논평
1 단신 – 철도, 발전, 가스 등 3사 노조 총파업 돌입

위대한 김일성주석님 노작

2 남조선 혁명과 조국통일을 위하여(1) 조선노동당 제5차 대회

세기와 더불어

4 3장 4절 조직을 확대하기 위하여 (1)

칭송

6 오늘에도 변함없이
6 통일의 집 지읍시다
6 혁명의 수뇌와 심장

한국민족민주전선

7 이북에서 펼쳐지는 인덕정치
7 자주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8 반부시투쟁을 더높은 반미투쟁으로 승화시켜나가자
8 도청기사건이 보여주는 것

조선중앙통신

9 주체 91, 2월 23일

김일성종합대학 방송강좌

11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고난의 행군, 강행군 영도의 역사적 지위

아리랑뉴스

12 빼앗긴 금메달, 오만한 부시
12 파월 ≪부시 대북문제 한발짝도 물러서지 않아≫
12 테러방지법안은 ≪간판 사기≫다
13 미국이여, 낙점하소서?
14 철도, 발전, 가스 등 3사 노조 총파업 돌입
14 민주노총 노동자대회

운동강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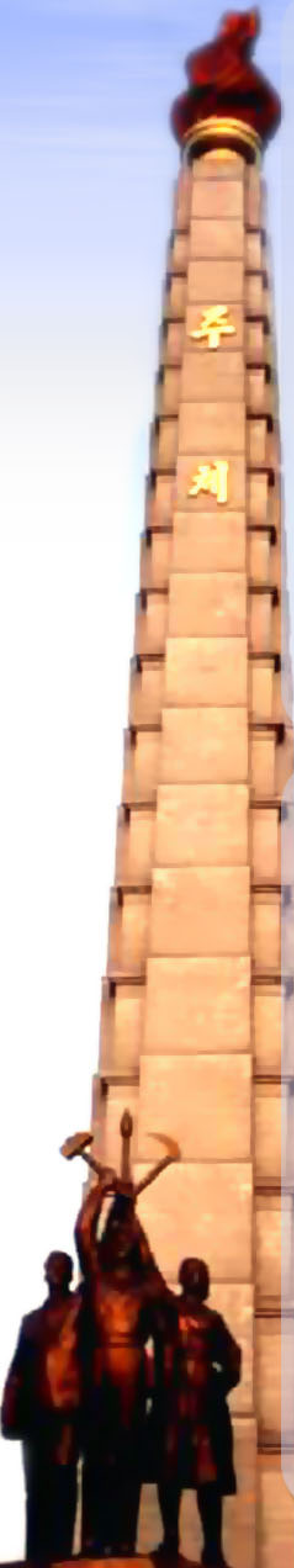
15 두 개의 전선, 승리를 향한 일보전진(8)

조국통일3대헌장

16 민족대단결과 연방제통일 방식에 관한 논의 (3)

남조선 혁명과 조국통일을 위하여(1)

조선노동당 제5차 대회 발췌 / 1970년 11월



동지들!

남조선혁명은 전조선혁명의 구성부분입니다. 조선혁명의 전국적 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치는 것과 함께 남조선에서 혁명투쟁을 더욱 발전시켜야 합니다.

총결기간에 남조선 정세에서는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을 자기들의 군사 침략 기지로, 군사적 부속물로 더욱 철저히 전변시켰으며 군사 팟쇼 독재에 의거하여 침략과 전쟁정책을 그 어느때보다도 강화하였습니다. 다른 한편 남조선에서 민족적 및 계급적 모순이 더욱 첨예화되고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인민대중의 혁명적 진출이 적극화되였으며 따라서 미제의 식민지통치에는 보다 심각한 위기가 조성되였습니다. 이것이 지난 기간 남조선 정세발전에서의 주되는 총화입니다.

남조선혁명은 미제국주의침략자들을 반대하는 민족해방혁명인 동시에 미제의 앞잡이들인 지주, 매판자본가, 반동관료배들과 그들의 파쑈통치를 반대하는 인민민주주의혁명입니다. 이 혁명의 기본임무는 남조선에서 미제국주의침략세력을 내쫓고 그 식민지통치를 없애며 군사파쑈독재를 뒤집어 엎고 선진적인 사회제도를 세움으로써 민주주의적 발전을 이룩하는 데 있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에서 모든 권력을 틀어쥐고 있는 실제적 통치자이며 남조선혁명의 첫째가는 투쟁 대상입니다.

미제의 남조선 강점과 그 식민지통치는 남조선인민들이 겪고 있는 모든 불행과 고통의 화근입니다. 남조선에서 미제침략자들을 몰아내며 그 식민지통치를 때려부시지 않고서는 남조선인민들이 오늘의 불행한 처지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남조선의 한줌도 못되는 지주, 매판자본가, 반동관료배들은 미제국주의자들의 침략정책을 충실히 집행하고 있으며 그들의 비호 밑에 남조선인민들을 억압하며 가혹하게 착취하고 있습니다.

남조선혁명의 동력은 로동계급과 그의 믿음직한 동맹자인 농민을, 비롯하여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는 진보적인 청년학생, 지식인, 애국적 군인, 일부애국적 민족자본가들과 소자산계급입니다. 남조선에서의 혁명투쟁은 미제침략세력과 그와 결탁한 지주, 매판자본가, 반동관료배들을 반대하는 남조선의 로동자, 농민, 진보적 청년학생, 지식인, 애국적 군인, 애국적 민족자본가들과 소자산계급을 비롯한 각계 각층 인민의 정의의 투쟁입니다.

남조선인민들은 해방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는 혁명투쟁을 계속 꾸준히 벌려 왔습니다. 특히 남조선인민들의 혁명투쟁은 전후 시기에 와서 점차 새로운 발전 7계에 들어서게 되였으며 어려운 시련 속에서 그 성과를 확대하면서 자기의 앞길을 개척하여 왔습니다. 전후에 남조선인민들은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의 성과에 고무되면서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며 정치적 자유와 민주주의적 권리와 나라의 통일을 위하여 계속 억세게 싸웠습니다. 남조선혁명가들과 인민들의 이러한 투쟁 과정에서 피도 많이 흘렸고 가슴아픈 실패도 여러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당한 희생과 실패는 결코 헛되지 않았으며 이것은 그들로 하여금 포악한 적들과는 오직 조직된 힘으로 맞서야만 승리할 수 있다는 혁명투쟁의 고귀한 진리를 점차 깨닫게 하였습니다.

남조선혁명가들은 혁명력량을 하나로 굳게 묶어 세우며 투쟁을 통일적으로 지도할 당을 세울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였으며 그 실현을 위하여 적극 투쟁하였습니다. 남조선혁명가들의 줄기찬 투쟁의 결과로 그리고 남조선혁명운동발전의 필연적 요구를 반영하여 1955년 12월 남조선혁명가들의 합법적 정당으로서 진보당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진보당은 반제, 반파쑈, 평화통일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투쟁강령을 내놓고 각계각층의 애국적 민주주의력량을 묶어세우며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민족분렬정책과 파쑈화정책을 반대하는 적극적인 투쟁을 벌리였습니다. 남조선의 평범한 인민들 속에서 진보당의 위신은 높아졌으며 특히 이 당이 내놓은 평화통일강령은 남조선사회에서 커다란 지지를 받게 되였습니다.

1956년에 있은 괴뢰대통령 선거 때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폭압과 사기와 협잡 속에서도 진보당이 내세운 ≪후보자≫가 미제의 충실한 앞잡이인 리승만이 얻은 투표수보다 약간 적은 수인 200만 표 이상의 찬성투표를 받았다는 사실은 이에 대한 뚜렷한 증거로 됩니다. 이것은 남조선인민들이 미제의 식민지파쑈통치와 민족분렬정책을 반대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사회의 민주주의적 발전을 절실히 념원하고 있다는 것을 뚜렷이 보여주었습니다. 진보당의 영향력이 남조선인민들 속에서 빨리 확대강화되는 데 겁을 집어먹은 미제와 그 앞잡이들은 류혈적인 탄압책동을 벌려 수많은 진보당당원들을 체포 투옥하고 그 당수 조봉암선생을 학살하는 야수적 만행을 감행하였으며 당을 강제로 해산시켰습니다. 그리하여 1958년 1월에 진보당은 자기 존재를 끝마치게 되였습니다. 비록 진보당이 원쑤들을 반대하는 남조선인민들의 투쟁기세를 대중적 혁명운동으로 전환시키지 못하고 자체의 혁명력량을 보존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으나 남조선에서 조국통일의 기운을 더욱 높이고 인민들의 반미반독재투쟁을 발전시키는 데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진보당이 해산된 후 남조선의 애국적 인민들에 대한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탄압책동은 더욱더 강화되였습니다. 그러나 온갖 난관과 시련 속에서도 남조선에서 인민들의 혁명투쟁은 계속 줄기차게 벌어졌으며 혁명력량은 끊임없이 자라났습니다.

1960년 4월에 있는 인민봉기는 남조선혁명운동 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점을 이루어 놓았습니다. 4월 인민봉기는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식민지통치 밑에서 오래동안 쌓이고 쌓였던 남조선인민들의 원한과 분노의 폭발이였으며 남조선 전역에서 수백만명에 이르는 광범한 군중이 참가한 대중적인 반미구국항쟁이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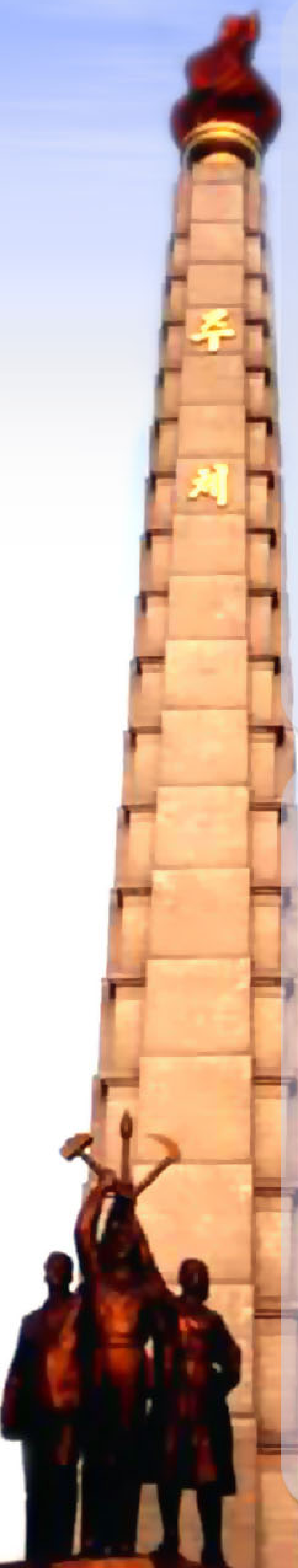
남조선청년학생, 지식인들을 비롯한 인민대중의 영웅적 투쟁에 의하여 미제의 오랜 앞잡이인 리승만괴뢰정부는 결국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전후남조선인민들의 반미구국투쟁에서 이룩한 첫 승리였습니다. 4월 인민봉기는 남조선인민들의 영웅적 기개를 뚜렷이 시위하였으며 인민대중이 힘을 합쳐 억압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에 일떠선다면 원쑤들의 어떠한 아성도 능히 짓부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습니다. 4.19 봉기를 계기로 남조선에서 미제의 식민지통치 위기는 더욱 심화되고 정세는 혁명의 편에 이롭게 전변되였습니다.

4월 인민봉기에 뒤이어 남조선 애국자들과 인민대중의 혁명적 진출은 날로 강화되고 진보적인 정치 세력이 대두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사회대중당이 나오게 되였습니다. 남조선혁명가들의 지도 밑에 사회대중당은 민족자주로선에 기초한 민주주의적 통일 국가의 창건을 당면 과업으로 내세우고 인민들의 대중적 진출을 조국의 자주적 통일을 위한 구국운동에로 이끄는 활발한 조직정치활동을 벌렸습니다. 이 당은 광범한 민주주의력량의 통일전선적 련합체인 ≪민족자주통일중앙협의회≫를 묶고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는 각계 각층 인민들의 공동투쟁을 조직지도하였습니다. 사회대중당의 지도 밑에 투쟁의 불길은 남조선 온 지역에 세차게 타 번지고 남조선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은 ≪통일만이 살길이다≫,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만나자 판문점에서≫라는 구호를 들고 남북의 장벽을 허물어뜨리기 위한 영웅적인 투쟁을 벌렸습니다.

그러나 사회대중당은 청년학생들의 혁명적 진출을 미제의 남조선 강점을 끝장내며 그 식민지통치기구를 때려 부시고 민주주의적 정권을 세우기 위한 투쟁에로 발전시키지 못하였으며 이 투쟁에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각계 각충의 광범한 군중을 조직동원하지 못하였습니다. 사회대중당은 미제국주의자들이 반동 군사 깡패들을 내세워 반혁명적인 ≪군사정변≫을 일으키고 혁명력량에 대한 파쑈적인 공격을 감행하여 나섰을 때 그에 단호한 반격을 가하지 못하였으며 청년학생들의 투쟁은 결국 탄압당하고 말았습니다.

5.16≪군사정변≫이 있은 후 미제와 그 앞잡이들은 남조선에서 로골적인 군사파쑈통치를 실시하는 길에 들어섰습니다. 그들은 남조선인민들의 초보적인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마저 짓밟고 모든 진보적 정당, 사회단체들을 강제로 해산시켰으며 언론, 출판 기관들을 폐쇄하고 수십만의 혁명가들과 애국적 인민들을 닥치는 대로 검거, 투옥, 학살하는 만행을 감행하였습니다. 원쑤들의 이와 같은 야수적 폭압으로 말미암아 사회대중당은 파괴당하고 남조선의 혁명력량은 커다란 손실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전후 이러한 투쟁 과정을 통하여 남조선혁명가들과 애국적 인민들은 더욱더 각성되였으며 많은 귀중한 교훈과 가치있는 투쟁 경험을 쌓았습니다. 남조선혁명운동의 역사적 경험은 정권을 위한 투쟁에서 평화적 이행이란 있을 수 없으며 또한 순수 대중운동만으로는 혁명을 승리에로 이끌 수 없다는 것을 뚜렷이 보여 주었습니다.

통일혁명당 선언과 강령에서는 당의 지도리념이 맑스-레닌주의적 주체사상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당의 최고 목적은 사회주의,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는 것이며 당면목적은 남조선에서 미제국주의와 파쑈 통치를 반대하는 인민민주주의제도를 세우며 나아가서 민족의 희망과 념원인 조국통일의 대열을 성취하는 데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제의 비호 밑에 남조선의 력대 반동통치배들은, 인민들의 지지를 받는 진보적 인사들이 정권에 들어앉을 기색이 조금이라도 보이기만 하면 그들을 무참히 학살하였으며, 미제의 식민지통치를 반대하고 나라의 통일을 지향하는 인민들의 대중운동이 일어날 때마다 그것을 매번 야수적으로 탄압하는 것으로 대답하였습니다. 진보당도 바로 조국통일의 구호 밑에 선거에서 인기를 끌게 되자 곧 파괴당하였으며 사회대중당 역시 광범한 대중을 조국통일을 위한 구국투쟁에로 이끌고 인민들 속에서 신망이 높아지자 강제로 해산당하고 말았습니다.

자기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혁명적으로 나가려는 사람들에 대하여 테로를 감행하는 것은 원쑤들의 상투적인 수법입니다. 놈들은 해방직후에도 려운형 선생을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주장하였다는 단 한 가지 리유로 암살하였으며 김구선생 역시 남북조선제정당사회단체련석회의에 참가한 뒤 진보적으로 나가게 되자 암살하였습니다. 남조선혁명가들과 애국적 인민들은 남조선의 반동통치배들이 자기의 지배권을 공손히 양보하려 하지 않으며 진보적 력량을 압살하기 위하여 반혁명적 폭력에 필사적으로 매어달리고 있는 조건에서 오직 혁명적인 투쟁방법으로써만 정권을 쟁취할 수 있다는 것을 더욱더 깊이 깨닫게 되였습니다. 그들은 혁명에서 승리하기 위하여서는 반파쑈민주화를 위한 대중투쟁을 적극 벌리는 것과 함께 적들의 반혁명적 폭력에 혁명적 폭력으로 대항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귀중한 교훈을 얻게 되였습니다.

특히 4.19인민봉기와 그 후의 사태발전은 남조선에서 미제침략자들을 몰아내며 미제의 식민지통치를 뒤집어 엎기 위한 결정적인 혁명투쟁을 통해서만 인민들은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를 쟁취할 수 있으며 이러한 투쟁은 오직 로동계급의 전위대인 맑스-레닌주의 당의령도 밑에 로동자, 농민, 청년학생을 비롯한 광범한 인민대중이 동원되어야만 승리할 수 있다는 심각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남조선혁명가들은 원쑤들과의 투쟁에서 피의 대가로 얻은 고귀한 경험과 교훈을 옳게 살리면서 군사파쑈통치배들의 악독한 폭압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혁명투쟁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그들은 지난날 남조선혁명운동의 본질적 약점을 극복하고 혁명을 성과적으로 진전시키기 위한 관건적 고리를 로동계급의 맑스-레닌주의 당 창건에서 찾았으며 온갖 간난신고를 이겨내면서 통일혁명당건설을 다그치였습니다. 그들과 인민들이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는 간고한 혁명투쟁 속에서 나오게 되였습니다. 로동계급의 맑스-레닌주의당의 출현으로 남조선의 억압받고 착취받는 광범한 인민대중은 자기의 계급적 및 민족적 리익의 참다운 옹호자를 가지게 되였으며 자유와 해방을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혁명투쟁은 자기의 믿음직한 정치적 참모부를 가지게 되였습니다.

통일혁명당의 정치적 립장과 투쟁목표는 지난 해 8월 서울에서 이 당중앙위원회의 명의로 발표된 통일혁명당 선언과 강령에 뚜렷이 밝혀져 있습니다.

통일혁명당 선언과 강령에서는 당의 지도리념이 맑스-레닌주의적 주체사상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당의 최고 목적은 사회주의,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는 것이며 당면목적은 남조선에서 미제국주의와 파쑈 통치를 반대하는 인민민주주의제도를 세우며 나아가서 민족의 희망과 념원인 조국통일의 대열을 성취하는 데 있다고 밝혔습니다. 통일혁명당이 내세우고 있는 투쟁목표와 투쟁강령은 남조선사회경제발전의 합법칙적 요구와 각계각층 인민들의 한결같은 지향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미제 침략자들의 식민지통치를 반대하고 사회의 민주주의적 발전과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하여 싸우는 남조선의 모든 애국적 민주력량의 공동의 정치강령으로 되며 전체 남조선인민들의 투쟁목표로 됩니다.

통일혁명당조직들은 매국적 ≪한일회담≫을 반대하는 1964년의 6.3봉기, ≪한일협정≫을 배격하는 1965년 8월 투쟁, 1967년의 괴뢰대통령 및 괴뢰국회의원 ≪선거≫반대투쟁을 비롯한 많은 투쟁에 적극 참가하였으며 오늘 남조선인민들의 혁명투쟁에서 지도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투쟁 과정에서 당은 끊임없이 혁명적으로 단련되였으며 남조선인민들 속에서 그 영향력과 신임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오늘 남조선혁명가들은 통일혁명당조직들을 튼튼히 꾸리는 한편 그 두리에 애국적 인민들을 굳게 묶어 세우며 지하와 산 속에서, 감옥과 교수대에서 영웅적인 반미구국투쟁을 벌리고 있습니다.

(내일 계속됩니다)

정치사전

통일혁명당

남조선혁명가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남조선혁명력량을 튼튼히 꾸릴데 대한 사상을 높이 받들고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가혹한 파쑈적탄압속에서도 혁명적당을 창건하기 위한 투쟁을 힘 있게 벌렸다. 여러 도들에서 지하혁명조직들 뭇고 당의 지도핵심을 키웠으며 그 성과에 토대하여 1964년 3월 15일 통일혁명당창당준비위원회를 결성하였다. 창당준비위원회는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실천투쟁속에서 단련된 혁명가들을 중심으로 서울시당위원회와 전라남도당위원회, 경상북도당위원회를 비롯한 지방당조직을 내오고 선진적인 로동자, 농민, 인테리들을 받아 들여 그 대렬을 확대해 나갔다. 그리고 위대한 수령님의 고전적로작들과 영광찬란한 혁명력사에 대한 도서들을 출판하고 당기관지인 비합법적 신문≪혁명전선≫과 합법적출판물인 ≪청맥≫을 발간하여 불멸의 주체사상으로 각급 당 조직성원들을 튼튼히 무장시키였다. 한편 통일혁명당조직들은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광범한 군중속에서 대중정치사업을 힘 있게 벌려 그들의 계급적각성을 높이고 인민들로 하여금 반미구국투쟁에 적극 떨쳐 나서게 하였다. 이와 함께 비합법적조직으로서 ≪민족해방전선≫과 ≪조국해방전선≫, 비밀독서회를 내오고 합법적조직으로서 ≪60년대학사회≫, ≪청년문학가협회≫, ≪청맥회≫등 수많은 단체들을 조직하여 광범한 군중을 조직적으로 결속하였다. 통일혁명당조직들은 또한 여러가지 형태의 투쟁을 적극 벌려 투쟁속에서 혁명력량을 끊임없이 키워 냈다. 통일혁명당조직들은 1964년 6.3봉기와 1965년 8월투쟁 등에 적극 참가하였으며 1967년 6.8부정≪선거≫와 1969년 ≪3선개헌≫을 반대하기 위한 투쟁을 비롯한 반미반파쑈민주화투쟁을 힘 있게 벌렸다. 통일혁명당조직들과 남조선혁명가들의 적극적인 투쟁에 의하여 불과 4~5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기간적인 공업부문을 비롯한 산업부문과 농촌들, 교육, 문화, 언론, 출판 기관들에까지 당조직이 확대되였으며 당의 핵심력량도 튼튼히 마련되였다. 남조선혁명가들은 창당을 위한 준비가 튼튼히 갖추어 지게 되자 1969년 8월 25일 서울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끝없이 충직한 주체형의 공산주의핵심들로써 통일혁명당중앙위원회를 결성하고 당 창건을 온 세상에 선포하였다. 통일혁명당은 선언과 강령에서 당의 지도리념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이라는것을 엄숙히 선포하였다. 또한 당의 최고 목적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는것이며 당면목적은 남조선에서 미제국주의의 파쑈통치를 반대하는 인민민주주의혁명을 수행하여 식민지반봉건사회제도를 뒤집어엎고 인민민주주의제도를 세우며 나아가서 민족 최대의 념원인 조국통일의 위업을 성취하는데 있다는것을 밝혔다. 통일혁명당의 창건은 남조선에서 주체형의 혁명적당을 건설할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독창적인 사상의 빛나는 실현이였으며 남조선혁명가들과 인민들이 장기간에 걸친 피 어린 투쟁의 고귀한 결실이였다. 통일혁명당이 창건됨으로써 로동계급과 농민을 비롯한 남조선의 억압받고 착취 받는 광범한 인민대중은 자기의 계급적 및 민족적 리익의 참다운 옹호자를 가지게 되였으며 자유와 해방을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혁명투쟁은 자기의 믿음직한 전위부대, 정치적참모부를 가지게 되였다. 이때로부터 남조선혁명운동은 력사적으로 내려오던 본질적약점을 극복하고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서게 되였으며 승리의 한길을 따라 확신성있게 나아갈수 있게 되였다. 통일혁명당은 창건이후 위대한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원쑤들의 거듭되는 반동공세를 물리치면서 자기 대오를 불패의 대오로 꾸려 놓았으며 남조선에서 반미자주와 반파쑈민주화,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조직전개하였다. 오늘 통일혁명당은 남조선혁명의 참모부로서의 역할을 빛나게 수행하고 있으며 투쟁과정을 통하여 불패의 대오로 더욱 강화되고 남조선인민들속에서 그 영향력과 신임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1권 제3장

길림시절

1. 선진사상의 탐구
2. 상월선생
3.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
4. 조직을 확대하기 위하여
5. 단결의 시위
6. 안창호의 시국대강연
7. 3부통합
8. 차광수가 찾은 길
9. 왕청문의 교훈
10. 철창속에서

4. 조직을 확대하기 위하여 (1)

반제청년동맹과 공청을 내온 다음부터 우리는 활동무대를 광활한 지역에로 넓혀나갔다. 공청과 반제청년동맹의 핵심들이 조직을 확대하기 위하여 꼬리를 물고 길림을 떠나갔다.

나도 그때 학생의 몸이지만 여러고장들에 나가군 하였다.

길림에서 몇백리 떨어진 곳들에도 자주 다니며 새로운 활동무대를 개척하였다. 토요일 저녁차로 길림을 떠나 교하, 카륜, 고유수와 같은 고장들에 갔다가 다음날 밤차로 돌아오군 하였는데 피치 못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결석도 하였다. 리광한교장이나 상월선생을 제외한 대다수의 교원들은 그것을 몹시 이상하게 생각하였다. 아버지도 안계시고 집이 가난하여 학비벌이라도 하는게 아닌가고 짐작하는 사람들까지 있었다.

신분이 학생이고보니 여러가지 구속과 제약이 없지 않았다. 강의에 참가하고 과외학습을 하고 그 여가를 타서 여러 조직들의 사업까지 보아야 했으므로 나는 늘 시간의 부족을 느끼군 하였다.

시간의 구속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시기는 방학때였다. 우리는 보통때 준비를 잘해두었다가 방학이 되면 여러고장으로 다니며 조직을 꾸리는 활동도 하고 군중계몽도 하였다.

인민들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국내에서도 하나의 사회적 풍조로 되고 있었다. 방학이 되면 많은 학생들이 농민들속에 들어가 계몽활동에 참가하였다. 내가 화성의숙에 다니던 그해 여름 국내에서는 ≪조선일보≫사가 방학이 되어 고향으로 돌아가는 중등학교이상의 학생들로 계몽대를 뭇고 그들에게 강습까지 주어 농촌으로 내려보냈다. 계몽대에 망라된 학생들은 고향에 돌아가 신문사에서 만들어준 조선어교본을 가지고 문맹퇴치사업을 하였다.

일본에 가서 공부하는 류학생들도 방학이 되면 조국에 돌아와 류학생순회강연대를 무어가지고 전국각지를 돌아다니면서 계몽사업을 하였으며 천도교와 기독교청년회에서도 농민들속에 침투하여 농촌진흥사업을 추진시키었다.

그러나 국내학생들의 계몽운동은 민족의식의 계발을 지향하는 모든 국민적 운동을 저들의 식민지정책에 대한 반항으로 보는 총독부당국의 철저한 탄압과 지도자들의 사상적 제한성으로 인하여 대중을 혁명화하고 조직화하는 단계에로까지 발전하지 못하고 민족의 후진성을 극복하기 위한 순수한 개량주의적 운동에 머무르고 말았으며 그것마저 1930년대 중엽에 들어가서는 하강기를 맞이하였다.

그 운동이 순수한 개량주의적 운동으로 전개되었다는 것은 농촌에서 그들이 해온 활동내용을 보아도 잘 알수 있다. 그들의 활동에서 중심을 이루는 것은 문맹퇴치와 농촌의 생활환경을 위생적으로 개조하는 것이었다. 기독교청년성원들이 진행한 활동내용가운데는 지어 료리법의 개선운동과 우물을 깨끗이 거두는 운동으로부터 시작하여 양계, 양잠법과 당국이 발행한 증명서, 신청서의 사용법에 이르기까지 농촌주민들을 근대적 생활에로 안내하고 유도하기 위한 여러가지 문화계몽적인 문제들이 다 포함되어있었다.

우리는 일제의 탄압이 직접적으로 미치지 않는 유리한 조건을 리용하여 농촌계몽활동을 대중을 조직화, 혁명화하기 위한 활동과 밀접히 결합시키면서 그것을 적극적인 정치투쟁의 한 형태로 승화시키는데 큰 주의를 돌리었다. 우리의 군중공작은 애국주의교양, 혁명교양, 반제교양, 계급교양을 주선으로 하여 사람들을 의식화하고 그들을 각종 대중조직에 묶어세우는 방향에서 진행되었다.

우리가 대중의 혁명화를 위해 그처럼 전력을 다한 것은 그들을 우매하고 미개한 계몽대상으로만 보아오던 종래의 사고방식에서 탈피하여 인민이야말로 우리의 선생이며 혁명을 추동하는 기본동력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그것을 절대시한데 있었다.

우리는 이런 관점을 가지고 인민들속으로 들어갔다.

≪인민들속으로 들어가라!≫

그때부터 이 구호는 나의 전생애를 관통하는 좌우명으로 되었다.

나는 인민들속에 들어가는 것으로 혁명활동을 시작하였고 오늘도 인민들속에 들어가는 것으로 혁명을 계속하고 있다. 그리고 인민들속에 들어가는 것으로 인생을 총화하고 있다. 단한번이라도 인민들과의 접촉을 게을리하고 단 한번만이라도 인민의 존재를 망각하는 순간이 있었다면 나는 10대의 시절에 이미 형성된 인민에 대한 순결하고 진실한 사랑을 오늘까지 간직하지 못하였을 것이며 인민에 대한 참다운 복무자가 되지 못하였을 것이다.

인민의 권리가 최대한으로 보장되고 인민의 지혜와 창조력이 무한정 발양되는 오늘의 우리 사회에 대하여 생각할 때마다 나는 우리를 인민행 렬차에 처음으로 태워준 길림시절에 감사를 드리군한다.

우리가 인민들속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시작한 것은 1927년 겨울방학부터였다.

부자집학생들한테는 겨울방학이 문자그대로 신선놀음이었다. 그들은 겨울 내내 집에서 련애소설을 보며 딩굴든가, 기차를 타고 장춘이나 할빈, 베이징과 같은 대도시로 유람을 떠나든가 하였다. 음력설이 되면 좋은 음식을 해놓고 폭죽을 터뜨리며 흥겹게 놀았다. 원래 중국사람들에게는 음력 정월초하루부터 2월 2일까지 정월 한달동안 계속 노는 풍속이 있다. 그들은 음력 2월 2일을 룡태두(룡이 대가리를 쳐든 날)라고 하면서 정월에 잡은 돼지대가리를 다 삶아먹어야 명절놀이를 끝낸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처럼 유람을 다닐수도 없었고 명절놀이로 풍청거릴수도 없었다. 그대신 어떻게 하면 방학을 리용하여 혁명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궁리를 하였다.

나는 방학이 되자 연예대원들을 데리고 장춘에 갔다가 거기서 돌아오기 바쁘게 인차 무송으로 떠났다. 박차석과 계영춘도 한해 겨울을 우리 집에서 보내기로 약속하고 나와 동행하였다.

그해 겨울방학을 우리는 참으로 바쁘게 보내였다.

나는 집에 도착하기 바쁘게 새날소년동맹원들에게 둘러싸이었다. 그들은 동맹이 겪고 있은 사업상 고충에 대하여 기탄없이 하소연하였다.

동맹위원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해결을 기다리는 문제들이 한두가지가 아니었다.

우리는 그들의 애로를 풀어주기 위하여 새날소년동맹원들과의 사업에 많은 시간을 바쳤다. 동맹지도일군들에게 연예선전대의 활동방법, 사회활동방법, 군중공작방법, 동맹내부사업방법들을 가르쳐주면서 정치토론회와 성격검토회에도 자주 참가하여보았다.

소년동맹사업을 추켜세운 다음에는 무송지방의 핵심청년들로 백산청년동맹을 조직하였다. 백두산주변에 있는 청년들의 조직이라는 의미에서 백산청년동맹이라는 이름을 달았으나 그 단체는 사실상 반제청년동맹의 변신이었다. 우리가 그 조직에 백산반제청년동맹이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고 그저 청년동맹이라고 한 것은 적들에게 혼란을 주고 조직을 위장시키기 위해서 였다. 백산청년동맹은 민족주의영향하에 있는 단체처럼 변장하고 합법적인 활동을 하였다. 우리는 백산청년동맹원들을 움직여 청와재를 비롯한 주변의 농촌마을들에 야학을 내오도록 하였다.

나는 청년조직들이 늘어나고 그 대렬이 확대되는 조건에서 광범한 청년들과 군중들에게 사상적인 량식을 줄수 있는 신문이 있어야겠다고 생각하였다. 신문을 만드는 사업은 완전히 령에서 시작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욕심 같아서는 한번에 신문을 100부 정도씩 찍어내고 싶었지만 우리에게는 등사기도 없고 종이도 없었다.

무송에 중국사람이 경영하는 자그마한 인쇄소가 하나 있기는 하였으나 우리가 만들 신문의 내용으로 보아 그 인쇄소에 의뢰할 수가 없었다.

나는 생각다 못해 손으로 써서 신문을 내기로 마음먹고 이 사업에 새날소년동맹열성자들과 백산청년동맹의 핵심들을 동원시키었다. 100부를 쓰는데 한주일이상의 시간이 걸리었다.

1928년 1월 15일 우리는 드디여 ≪새날≫이라는 제호를 단 신문의 창간호를 세상에 내놓았다.

그때 무슨 정력으로 그 많은 글을 다 써냈던지 지금에 와서 생각하면 좀처럼 믿어지지 않는다. 그 시절의 혈기와 젊음이 그리워지는 때가 많다. 우리는 그때 자기를 혁명에 깡그리 바치는 거기에서 둘도 없는 행복을 느끼

었다. 꿈도 없고 담력도 없고 열정도 패기도 투지도 랑만도 없는 청춘은 청춘이 아니다. 젊은 시절에는 리상을 높이 세우고 그 리상을 실현하기 위해 만난을 무릅쓰고 완강하게 투쟁하여야 한다. 생신한 사상과 건실한 육체를 가진 청춘들이 피와 땀을 바쳐 가꾸고 이룩해놓은 모든 열매들은 조국의 귀중한 재부로 되며 그 재부를 이루어놓은 주인공들에 대하여 인민들은 영원히 잊지 않는 것이다.

사람이 나이가 들어 젊은 시절을 그리워하는 것은 그때가 일생에서 일을 제일 많이 할 수 있는 시절이기 때문이다.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때가 제일 행복하다.

그후 나는 아버지의 친지들한테서 힘들게 얻어낸 등사기로 ≪새날≫신문을 밀어냈다.

1927년 겨울방학의 활동가운데서 가장 이채로왔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연예선전대의 활동이였다. 무송의 연예선전대에는 새날소년동맹원들과 백산청년동맹원들, 부녀회원들이 망라되였다. 이 연예선전대가 무송과 그 주변의 농촌부락들을 돌아다니면서 한달가량 순회공연을 하였다. 우리는 순회공연을 하면서 도처에 조직도 꾸리고 군중계몽도 하였다. ≪혈분만국회≫, ≪안중근 이등박문을 쏘다≫, ≪딸에게서 온 편지≫와 같은 연극들은 다 그해 겨울에 우리가 무송에서 창작하고 공연한 작품들이다.

연극-혈분만국회

연예선전대가 순회공연을 앞두고 무송시내에서 며칠동안 공연활동을 하고 있을 때 군벌당국이 아무 리유없이 나를 체포하여 감옥으로 끌고갔다. 몇몇 봉건주의자들이 우리의 공연내용이 자기들의 비위에 거슬린다고 나를 군벌당국에 밀고하였던 것이다.

그때 소학교동창생인 장울화가 나를 석방시키느라고 무던히 애를 썼다. 그는 자기 아버지를 설복하여 경찰당국이 우리 집을 수색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하게 하였다.

장울화의 아버지는 우리 집에 치료를 받으러 다니는 과정에 의사가 소통하여 아버지의 친지가 된 사람이였다. 그는 거부이지만 량심적인 인간이였다. 우리 아버지가 무송에서 백산학교 복교를 발기하고 그 인가를 얻지 못해 애를 태울 대에도 그가 나서서 교섭을 하였다.

장울화의 아버지와 같은 세력가가 압력을 가하니 특별한 단서를 잡지 못하고 있던 군벌당국도 어떻게 하는수가 없었다.

그때 무송에 있는 조선사람들이 군벌당국에 몰려가 나를 석방하라고 집단적인 항의를 들이댔다. 우리 어머니가 조직을 발동하고 군중을 추동하였다. 중국인유지들까지도 군벌당국의 처사를 비난하면서 나를 내놓으라고 하였다.

얼마후 군벌당국은 하는수없이 나를 석방하였다.

나는 경찰서에서 풀려나오자 연예선전대를 이끌고 푸수허 마을로 떠났다.

연예선전대는 푸수허마을에서 연 사흘동안이나 공연하였다.

우리의 공연을 이웃마을 사람들까지 와서 구경하고 돌아가다나니 주변부락들에 소문이 굉장히 펴지게 되었다.

두지동사람들도 그 소문을 듣고 우리를 찾아와서 연예선전대를 자기네 마을로 초청하였다.

우리는 그 초청을 쾌히 수락하였다.

두지동에서의 공연은 대성황을 이루었다. 우리는 부락사람들의 요구에 의해 예정했던 체류기일을 여러번 연장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첫 공연이 끝났을 때 새날소년동맹 위원장이 무대뒤로 뛰어와서 마을의 좌상아바이가 나를 찾는다고 알려주었다.

입에 골통대를 문 풍채좋은 중늙은이가 방금 우리가 공연을 한 그 집 울타리밖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로인은 수북한 장미밑으로 나를 유심히 바라보고 있었다. 우리를 자기네 마을까지 안내한 두지동의 청년이 내곁에 다가와서 ≪차천리로인이요.≫하고 귀띔해주었다.

나는 차천리라는 말을 듣기 바쁘게 절을 하였다.

≪로인님, 인사가 늦어서 죄송합니다. 로인님께서 이웃동리에 나들이를 가셨다기에 미처 인사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내 나들이를 갔다가 연예대소문을 듣구 급히 뛰어왔네. 자네가 김형직선생의 자제라는게 적실한가?≫

≪네, 그렇습니다.≫

≪자네 같은 아들을 두었으니 김선생이 지하에서나마 마음을 놓게 되었네. 내 한평생 이렇게 훌륭한 연예는 처음 보았네.≫

로인이 격식을 차려 깍듯이 대하는 바람에 나는 여간만 당황해지지 않았다.

≪로인님, 이러지 마십시오. 아들 같은 사람을 앞에 세워두고 뭘 이러십니까.≫

로인은 그날 나를 자기 집으로 초대하였다.

나는 로인과 함께 그의 집으로 가면서 넌지시 이렇게 물었다.

≪로인님, 이거 버릇없는 물음이지만 로인님이 하루에 천리를 걷는다는게 정말입니까?…≫

≪허허, 자네도 그 소문을 들었던가. 내 한창 나이때에는 천리는 몰라도 오백리는 걸었네.≫

나는 그 대답을 듣고 차천리로인이 소문과 같이 대단한 독립운동자라고 생각하였다.

그의 성밑에 본명대신 천리라는 별명이 붙은 것이 다 일리가 있은 일이었다.

그 천리라는 이름때문에 로인은 만주지방의 조선사람들속에서 신비스러운 인물로 알려지고 있었다.

우리 아버지도 생전에 이 로인의 걸음걸이를 두고 탄복의 말씀을 한 적이 있었다. 아버지는 그때 천리라는 별명이 붙은 것은 로인이 강계지방에서 의병활동을 할 때부터라고 말씀해주었다.

차천리는 만주에 건너온후 참의부에 소속되어 심룡준의 부하로 활동하였다. 참의부가 상해림시정부의 치하에 들어갈 때 그것을 제일 견결하게 반대한 사람이 차천리였다는 말도 많이 들었는데 독립군단체가 림시정부의 울타리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달가와하지 않던 정의부의 몇몇 인사들은 로인의 립장을 격찬하였다. 지도부의 대다수가 군인출신인 정의부인물들속에서는 문관위주의 림시정부를 사답게 보지 않는 경향이 지배하고 있었다.

차천리로인은 그날 나에게 교훈적인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었다. 로인은 지난날 조선민족이 얼마든지 일본제국주의침략자들을 물리칠수 있었고 독립국가의 당당한 인민으로 발전할 수 있었으나 부패무능한 봉건통치배들때문에 나라를 빼앗겼다고 통탄하였다. 그는 독립운동을 하려면 말만 하여서는 안되며 손에 총을 잡고 왜놈을 하나라도 더 잡아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일본제국주의자들은 아주 교활한 놈들이기 때문에 경각성을 높여야 한다고 하면서 이야기까지 들려주었다.

≪자네 경성성냥공장이 망한 경위를 들어본 적이 있나? 이 공장에서 만들어낸 ≪잰내비표≫성냥이 아주 유명했네. 성냥두 성냥이지만 상표가 특별해서 사람들의 눈을 끌었지. 잰내비가 복숭아가지를 메고 있은 상표였거든. 왜놈들이 조선에 와서 딱성냥공장을 차려놓았지만 이 성냥때문에 돈벌이를 할 수 없었다는구만. 그래 여러가지로 계책을 짜내던 끝에 ≪잰내비표≫성냥을 수만통 사가지고 어느 무인도에 가서 성냥가치를 모조리 물어 잠궜다가 말린 다음 시장에 내다 팔았다는걸세. 그다음부터는 사가는 사람마다 불이 일지 않아 못쓰겠다고 하면서 왜놈들의 딱성냥만 사갔다지 않겠나. 경성성냥공장은 상표를 왜놈회사에 팔고 파산당했네. 왜놈족속들이란 이래.≫

사실여부는 확증할 수 없었지만 일본제국주의를 리해하는데서는 만냥짜리 이야기였다.

로인의 말이 자기는 한창나이때 화승대를 가지고 놈들이 5련발총으로 다섯발을 쏘는 사이에 세발은 쏘았는데 이제는 나이가 많아서 싸우지도 못하고 집에 들어박혀있자니 답답해견딜수 없다고 하였다.

로인은 그날 우리가 공연한 ≪단심줄≫이라는 가무가 대단히 좋다고 하면서 지난날 의병활동이 흐지부지돼버린 것도 힘을 합치지 못한 탓이며 독립군이 맥을 못추고 왜놈들에게 쫓겨다니는 것도 역시 힘을 합치지 못하고 제가끔 뿔뿔이 놀아나는 탓이라고 개탄하였다.

≪조선사람은 비록 셋이 모여도 단결하여 왜놈들과 싸워야 하네.≫

로인은 격해서 이렇게 말했다. 차천리로인의 말이 다 옳았다. 단결하면 이기고 분렬되면 망한다는 리치를 아프게 체험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그런 말을 할 수 없었다. 로인이 내 손을 붙잡고 자기는 나이가 많아 조선의 독립을 위해 싸울것 같지 못하다고 하면서 젊은 세대들이 잘 싸워달라고 당부할 때 나는 조선의 아들로서 인민의 기대에 어그러지지 않게 혁명을 잘해야겠다는 숭고한 사명감을 느끼었다.

그날밤 차천리로인이 해준 말은 나에게 큰 감명을 주었다. 조선사람들은 비록 셋이 모여도 단결하여 일제와 싸워야한다고 한 로인의 말은 그후 우리의 투쟁에서 큰 교훈으로 되었다.

연예선전대를 데리고 사람들속으로 들어가면 군중을 깨우쳐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군중에게서 배우기도 하였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우리의 선생은 역시 인민이었다.

그래서 나는 일군들을 만날 때마다 인민들속으로 들어가라고 간곡하게 말하군 한다. 인민들속에 들어가는 것은 보약을 먹는 것과 같고 들어가지 않는 것은 독약을 먹는 것과 같다고 늘 강조하군 한다. 인민들속에 들어가야 차천리 같은 로인도 만날수 있다. 인민들속에는 철학도 있고 문학도 있고 정치경제학도 있다.

차천리로인은 참의부의 경호대장으로 활동하다가 자기의 상관인 심룡준에게 암살당하였다고 한다.

나는 그 슬픈 소식을 듣고 조선사람은 비록 셋이 모여도 단결하여 왜놈들과 싸워야 한다던 차천리로인의 말을 비분강개한 심정으로 되새겨보았다. 로인의 좌우명처럼 참의부의 지도자들이 서로 마음을 합치였더라면 이런 통탄할 불상사도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신문 새날창간호를 만든 무송의 백산학교

일화

오늘에도 변함없이

1998년 1월 중순 자강도에 대한 현지지도를 하고 계시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장자산발전소를 돌아보시고 그곳을 떠나려 하실 때였다.

도당책임일군이 자강도 인민들이 몇 년 전부터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오실 날을 기다리며 성의껏 꾸려놓은 숙소가 있는데 그곳에 가시여 점심식사를 하시고 휴식하시었으면 하는 의향을 그이께 말씀 드리었다.

그러자 장군님께서는 몹시 미안한 안색을 지으시며 이번엔 그곳에 가볼 것 같지 못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었다.

도당책임일군은 그이께서 쉽게 응하시지 않으리라는 생각이 없지 않았던 까닭에 다시금 절절하게 청을 드리었다.

하지만 장군님께서는 자강도 인민들이 도에 꾸려놓은 숙소에서 침식을 할 것을 바란다는데 고맙습니다 전체 인민이 강행군을 하는 때인데 내가 어떻게 뜨뜻한 온돌방을 찾아다니겠습니까 라고 다정히 타이르시고 나서 받들어주는 인민들을 생각하여서라도 나는 더 긴장하게 강행군을 하여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시었다.

그러시고는 더 없이 서운해하는 도당책임일군에게 나는 여기로 떠나올 때부터 숙소를 열차에 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열차에서 침식을 하면서 열차로 갈데는 열차로 가고 승용차로 갈데는 승용차로 가면서 강행군을 하여야 계획한 대상들을 이틀 동안에 다 돌아 볼 수 있습니다 라고 강조하시었다.

도당책임일군은 더 다른 말씀을 올릴 수가 없었다.

할 수 없이 경애하는 장군님을 모시고 ≪열차숙소≫에 도착한 그의 마음은 더없이 허전하였다.

장군님께서는 그의 속마음을 헤아리시고 너무 섭섭해하지 말라고 하시며 밝게 웃으시었다. 그러시고는 점심식사나 간단히 하자고 하시면서 그를 열차의 식사칸으로 데리고 들어가시었다.

장군님을 따라 식사칸에 들어선 그는 그만 가슴이 뭉클해졌다.

식탁 위에는 남새로 속을 넣어 만든 몇 개의 강냉이가루 빵과 남새장국 한 사발이 매 사람당 차례지게 놓여 있었기 때문이었다.

장군님께서는 인민들이 강냉이가루와 장국으로 끼니를 에우면 우리도 강냉이가루와 장국으로 끼니를 에워야 한다고 하시면서 수저를 드시었다.

점심식사는 15분도 못되는 짧은 시간에 끝났다.

그날 저녁 도당책임일군은 자기 도를 찾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열차에서 주무시고 강냉이가루 빵을 잡수시는 것이 너무도 가슴에 걸려 아래일군들과 토의한 끝에 예로부터 건강에 좋다는 검정 닭과 검정 염소를 마련하여 그이의 식탁에 올리기로 하였다.

이렇게 되어 밤사이에 검정 닭과 검정 염소가 마련되었다.

다음날 아침 그는 흐뭇한 마음으로 그것들을 장군님의 식사보장을 맡은 일꾼에게 넘겨주려고 하였다.

그러나 그 일꾼은 도리질을 하였다. 장군님께서 아시면 인민들에게 폐를 끼쳤다고 되게 책망하신다는 것이었다.

그의 심정이 십분 이해 되였다. 하지만 한번 먹은 마음을 돌리고 싶지 않았다.

도당책임일군은 그날 점심시간에 용기를 내여 장군님께 우리 도내 인민들이 장군님께 올려 달라고 검정 닭과 검정 염소를 가져왔는데 성의로 아시고 받아주셨으면 한다고 말씀 올렸다.

장군님께서는 의아한 눈길로 그를 바라보시며 검정 닭과 검정 염소가 얼마나 되는 가고 물으시었다.

그의 대답을 들으신 장군님께서는 정색해지시면서 인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며 강행군을 하는데 우리가 배불리 먹어서야 되겠는가고 그 성의는 고맙지만 검정 닭과 검정 염소들을 임자들에게 그대로 되돌려주라고 각근히 이르시었다.

도당책임일군은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 없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인민들의 성의를 받아주실 것을 간절히 말씀드리었다.

장군님께서는 정 그렇다면 자신께서 받은 것으로 하고 돌려보내면 될 것이 아니냐고 그 성의만 보아도 기운이 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었다.

이렇게 되어 그 검정 닭과 검정 염소들은 다시 임자들에게 되돌아가게 되었다.

이처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우리 혁명을 영도하시기 시작한 첫날부터 오늘에 이르는 전기간 현지지도의 길에서 주무시는 숙소는 ≪열차숙소≫이고 잡수시는 음식은 언제나 인민들과 꼭 같은 소박하고 검소한 음식들이었다.

송가

통일의 집 지읍시다

6월선언 받들어
통일의 집 지읍시다
오손도손 우리 민족끼리
제 힘으로 지읍시다
힘과 지식, 돈을 모아
기둥 높이 세우고
한식솔로 살아갈
연방조국 세웁시다

백두산을 지붕삼고
삼천리를 뜨락삼아
세상사람 부럽게
보란듯이 지읍시다
조국통일3대헌장
찬란한 설계도로
남북이 하나될
연방조국 세웁시다

통일의 집 어서 짓고
큰절을 드립시다
감사의 정을 담아
통일축배 올립시다
김정일장군님을
어버이로 모시고
태양민족 자자손손
세상만복 누립시다

흠모

혁명의 수뇌와 심장

(모스크바 주체91, 2월 20일발 조선중앙통신)

로씨야신문 ≪빠뜨리오뜨≫ 제6호가 ≪혁명의 수뇌와 심장≫이라는 제목으로 신문사 책임주필 미하일 젬스꼬브의 글을 실었다.

필자는 오늘 날 세계가 말하는 ≪조선의 기적≫이 창조될수 있은것은 조선인민이 주체사상으로 무장하였기때문이라고 하면서 조선인민이 이룩한 성과에 대하여 지적하였다.

그는 주체사상의 화원속에서 배출된 창조자, 영웅들의 가장 특출한 본보기로 되시는 분이 바로 조선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시며 경애하는 인민의 수령이신 **김정일**동지이시라고 지적하였다.

그는 오늘 날 전 세계가 그이는 21세기 인류의 앞길을 개척하는데 커다란 기여를 하시는 참으로 세계적인 위대한 활동가이시라는것을 인정하고 있다고 썼다.

김정일령도자의 주되는 개성적특질은 의심할바 없이 혁명의 탁월한 사상리론가, 철학가로서의 자질이라고 하면서 그이께서는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수행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명철하게 해명하시여 주체사상을 더욱 발전풍부화하시였다고 그는 지적하였다.

필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사회주의시장의 붕괴와 제국주의련합세력의 고립압살책동, **김일성**주석의 서거로 인한 민족최대의 국상과 엎친데 덮친 격으로 자연재해까지 당하여 심한 난관을 겪었지만 결코 동요하거나 타협한것이 아니라 역경을 순경으로 전환시켜 나간데 대하여 상세히 서술하였다.

특히 미국이 어리석은 군사정치적공세를 강화하였지만 조선의 지도부가 강경에는 초강경으로 맞섬으로써 미국을 수세에 몰아 넣고 반공화국공세를 물리친데 대하여 그는 지적하였다.

필자는 세기의 교차점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이 나라의 최고령도자의 세계적권위와 위신이 급격히 높아 졌는데 이것은 조선이 세계적인 외교공세를 벌릴수 있는 폭 넓은 가능성을 주었다고 지적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이 나라 최고령도자의 경험과 모범은 로씨야사람들에게 더없이 귀중한 재부로 된다고 필자는 지적하였다.

이북에서 펼쳐지는 인덕정치

희망은 저 북녘하늘 아래 - 구국의 소리 주체91, 14일~15일

이북 땅에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사랑과 믿음의 정치, 인덕정치아래 민중의 참세상이 꽃피고 있는데요. 이 시간 첫순서로 인덕정치가 펼쳐지는 이북의 현실 알아보죠. 윤정원씨 모시겠습니다.

사회자 : 안녕하세요.

윤정원 : 안녕하세요.

사회자 : 지난 인류사를 더듬어보면 민중사랑의 참정치를 찾아볼수 없다고 봐지는데요.

윤정원 : 선정은 인류의 갈망으로만 돼왔죠.

사회자 : 바로 인류가 갈망해온 세상의 참정치가 오늘 이북 땅위에서 펼쳐지고 있다는게 사람들의 한결같은 평이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말씀 나눠볼까 해서 이렇게 자리마련했습니다.

윤정원 : 오늘 이북에서는 사랑과 믿음의 정치, 인덕정치가 구현되고 있어요. 사실 민중사랑의 참정치는 걸출한 영도자에 의해서 실현된다고 하겠는데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는 투철한 민중사랑의 인생관, 숭고한 민중사랑의 정치적 신앙을 지니시고 30여년 정치영도사를 인덕의 정치로 빛나게 수놓고 계시죠. 민중을 하늘처럼 여기시는게 **김정일**장군님의 정치적 신앙이시고 민중을 위해 헌신하는데서 최대의 행복을 찾으시는게 그분의 인생관입니다. 이런 정치적 신앙과 인생관을 지니시고 민중을 위한 참정치를 펴나가시는 **김정일**장군님에 의해서 이북에는 사랑과 믿음의 정치, 인덕정치의 대화원이 꽃피고 있습니다.

사회자 : 사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게 사랑과 믿음이잖아요. 돈이나 권력을 들여서도 결코 움직일수 없는 것이 사랑의 마음이지만 진정한 사랑과 믿음을 기울일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불가능도 가능으로 만들수 있고 새 세기도 창조할수 있는게 아니겠어요. 이북에서의 모든 정사는 바로 민중에 대한 진정한 사랑과 믿음에 기초하고 있고 그래서 이북이 세인의 찬양을 모으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윤정원 : 이북에서는 결정을 하나 채택해도 자주성을 지향하는 민중의 요구부터 생각하고 공장을 하나 건설해도 민중의 이익부터 고려합니다.

사회자 : 또 이북에 있는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 이 세상 유일의 구호도 바로 민중에 대한 사랑과 믿음에서 출발한 거잖아요.

윤정원 : 그렇죠. 그리고 이북에서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무료교육, 무료치료와 같은 우월한 민중적 시책들이 실시되고 있는 것도 사랑과 믿음의 인덕정치의 생동한 사례로 돼죠. 언젠가 이남에 살다 북으로 의거해 간 한 청년이 평양의 김만* 병원에서 여러 달동안 치료를 받고 퇴원한 적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청년은 이남에 있을 때에 중병에 걸렸지만 거액의 치료비를 낼수가 없어서 병원에 가기를 단념했었던 사람이였어요. 그러던 그가 북으로 가서 돈한푼 안내고 수술도 받고 장기간의 입원치료 끝에 완치돼서 병원문을 나서게 됐던거죠.

사회자 : 이남에서는 돈이 없으면 진찰조차 받을수 없고 장기입원치료 같은 건 상상조차 할수 없잖아요. 여기서 무전 소생의 이런 혜택을 생각이나 할수 있겠어요.

윤정원 : 그러니 그 의거자 청년의 심중이 어떠했으리라는 건 가히 짐작이 가죠. 그는 사람중시의 사랑과 믿음의 선정을 베푸시는 **김정일**영도자님의 인덕정치가 세상에서 제일입니다라고 격정에 넘쳐서 말했대요.

사회자 : 김정일장군님의 인덕정치가 제일이라는 한 의거입북자의 토로, 이건 그만이 아닌 이 땅 민중들의 진정의 목소리이기도 하죠.

윤정원 : 그럼요. 장군님께서 현지지도의 길에서 노동자의 기름묻은 손도 허물없이 잡아주신 얘기, 해풍에 피부가 튼 여성해안포 중대 군인들을 친딸처럼 걱정하시어 사랑의 약크림을 보내주신 소식 등 장군님의 민중에 대한 사랑과 믿음의 얘기를 듣고 얼마나 감격에 겨웠던 우리 민중입니까. 정말 장군님이시야말로 인덕의 화신이시라는 걸 더욱 절감하고 있는 우리들이죠.

사회자 : 김정일장군님의 민중에 대한 사랑과 믿음은 이북에서 펼쳐지고 있는 광폭정치에서도 뜨겁게 느낄수 있다고 보는데 어떠세요.

윤정원 : 그래요. 사람은 사상과 행동을 가지고 평가해야하며 조국과 민족에 이바지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출신경력이나 사상이념, 과거여하를 불문하고 포용해서 애국애족의 길에서 함께 손잡고 나가야 한다는게 그분의 광폭정치인데요. 이북에서는 장군님의 이러한 광폭정치아래서 천차만별의 인생행로를 걸어온 각계각층 민중 모두가 장군님의 한 식솔이 돼서 애국애족의 한길에서 보람찬 삶을 지내고 있어요.

사회자 : 장군님의 광폭정치 면모를 우리 민중은 현대그룹 정주영 전 명예회장의 경우를 통해 뜨겁게 느꼈었죠.

윤정원 : 사상과 정견, 신앙을 초월하고 핏줄과 언어를 뛰어넘어 온 겨레와 세인을 감동시키는 사랑과 믿음의 인덕정치, 광폭정치가 이북에서 펼쳐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한 연구소는 인덕정치, 광폭정치를 펴시는 **김정일**장군님을 덕으로 이기시는 성인으로 칭송했던 거라고 봅니다.

사회자 :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모셔 민중에 대한 사랑과 믿음으로 충만된 참 세상에서 살려는 이북 민중들은 얼마나 복받은 민중들이예요. 7천만 겨레 모두가 인덕의 대성인이신 **김정일**장군님을 높이 받들고 통일강성대국을 안아오는 투쟁에 한사람같이 나설때 우리 민족이 모두 함께 인덕정치, 광폭정치의 깃발아래 복락할 그날은 앞당겨 질 것이라 믿으면서 오늘 얘기 마칠까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윤정원 : 감사합니다.

자주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진용찬 - 구국전선 주체91, 2월 21일

오늘 이북은 민족의 태양이신 **김정일**영수님의 선군정치, 자주정치아래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건설하며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만방에 과시하고 있다.

김정일영수님의 선군정치는 자주정치이다. 영수님께서는 일찍이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목숨보다 귀중히 여기신다고 하시었다.

그분께서는 완전한 자주권과 평등권을 행사하는 것을 정치적 자주성을 보장하기 위한 근본문제로 보시고 자주적인 정치를 일관하게 시행해 오시었다.

자주정치란 한마디로 말해서 노선과 정책작성과 국정운영을 나라와 민족의 이익과 요구에 맞게 작성집행하며 대외적 관계에서 완전한 자주권과 평등권을 행사하는 정치를 말한다.

정권이 있어도 자주적인 정치를 하지 못하면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고수할 수 없고 민중은 식민지노예의 운명을 면할 수 없게 된다.

정치에서 자주성은 자주독립국가의 첫째가는 징표이다.

김정일영수님께서는 남의 정신으로 살고 남의 풍에 노는 것은 다 가련한 정치적 머슴이라고 하시면서 자주정치를 생명처럼 여기고 그것을 철저히 구현해 나가신다.

김정일영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당과 국가활동을 비롯하여 사회주의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을 자기 식으로, 주체적으로 벌여나가신다. 그분께서는 일찍이 ≪우리 식대로 살아나가자!≫는 구호를 제시하시고 그것을 국정에서 철저히 관철하게 하시었다. 우리 식대로 살아나간다는 것은 제정신을 가지고 사고하고 행동하며 모든 것을 자기 나라 혁명과 자기 나라 민중의 이익에 맞게 그리고 자체의 힘으로 해결해 나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정일영수님께서는 자주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정치, 경제, 문화, 군사의 모든 분야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우도록 하시었다.

동서냉전시대의 종식과 함께 미국을 비롯한 세계제국주의연합세력의 고립압살책동으로 하여 그처럼 어려운 난국이 조성돼 있을 때에도 이북이 주체식 사회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이겨내고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위대한 전환의 계기를 마련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김정일**영수님의 위대한 선군정치, 자주정치의 고귀한 결실이다.

김정일영수님은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건드리거나 침해하는데 대해서는 추호도 용서하지 않으신다.

김정일영수님께서는 미제에 대한 양보는 곧 굴종이며 투항이라고 하시면서 미국과는 그 어떤 타협이나 관용도 허용하지 않으신다.

그분께서는 미국이 ≪지하핵시설사찰≫ 문제를 들고 사찰을 강요하면서 북침 ≪5027작전≫을 실행하려고 책동했을 때에도 자주권을 침해하는 자들은 추호도 용서치 않을 것이라는 폭탄선언으로 미국의 침략기도를 일격에 격파하시었다.

이처럼 **김정일**영수님은 강인담대한 지략과 자주정치로 미국을 비롯한 제국주의열강들의 고립압살책동을 꺾어 이북의 위상을 떨치시었다.

김정일영수님은 나라의 통일문제도 민족자주의 원칙에서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실현해야 한다고 밝혀주시고 역사적인 6.15남북공동선언을 마련해 주시어 자주통일의 청사진을 펼쳐주시었다.

참으로 **김정일**영수님은 자주정치의 화신이시고 민족의 운명을 지켜주시고 빛내어주시는 구세주이시다.

자주성부재의 미국식민지속국민으로 자주권과 존엄을 무참히 유린당하고 있는 우리 민중은 오늘 **김정일**영수님의 자주정치를 끝없이 선망하고 있다.

우리도 그분의 자주정치하에서 살게 될 그날을 앞당기기 위해 더욱 억세게 싸워나가야 할 것이다.

구국의 소리

반부시투쟁을 더높은 반미투쟁으로 승화시켜나가자

노동자 농어민 시간 - 주체91 2월 20일~22일

그리스로마신화에는 ≪판도라상자≫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인류에게 불행과 재난만을 가져온 판도라상자죠.

지금 전쟁광이며 악의 화신인 부시가 가는 곳마다에서는 그 신화속의 판도라상자가 ***않습니까. 이번 부시의 방한은 우리 민중에게 또 한차례 불행과 재난만을 덮씌운 침략행각, 전쟁행각이였습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 먼저 ≪반부시투쟁을 더높은 반미투쟁으로 승화시켜나가자≫ 이런 제목으로 김현규씨 얘기주시겠습니다.

이번에 부시의 방한을 전후로 해서 반부시반미투쟁이 크게 고조되었는데요.

아시다시피 방한을 앞둔 부시가 북침전쟁도발과 같은 망발을 늘어놓았죠.

지난 1월 30일 ≪연두교서≫에서 한 부시의 ≪악의 축≫망발은 ******자의 오만하고 무지한 사고방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부시의 망발은 6.15공동선언이후 서로 손을 잡고 화해와 단합으로 나라의 통일위업을 세우려는 우리 민족의 머리위에 찬물을 끼얹고 또다시 이 땅위에 분열과 대결의 살벌한 분위기를 조성시켜 놓은 것으로 됩니다.

우리 민중은 이런 전쟁광, 악의 화신인 부시가 민족자주통일을 향한 우리 겨레의 진군길을 가로막고 한반도에 핵전쟁의 불을 지르려고 이 땅에 날아든 것을 결코 좌시, 묵과할수 없었습니다.

부시의 방한저지를 위한 반부시투쟁에는 언제나 믿음직한 노동자대중이 앞장에 서있었습니다.

부시의 ≪악의 축≫망언에 접한 민주노총은 즉시 성명을 통해 미국이야말로 세계 ≪악의 축≫, 한반도 분단고통의 원흉이라고 규탄하면서 이 땅의 모든 애국민중과 세계평화애호민중들과 굳게 연대하여 반부시투쟁을 단호히 전개할 것을 선언했습니다.

지난 2월 2일 서울 종묘공원에서 민주노총소속 700여명의 노동자들이 반부시시위를 벌였으며 14일에는 부시의 침략행각, 전쟁행각저지를 위한 투쟁에 총분기할 것을 호소한데 이어 청년학생들을 비롯한 600여개의 각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연일 부시방한저지투쟁을 힘차게 벌였습니다.

부시의 방한전에도 반부시투쟁은 더 강력하게 전개되었습니다.

이번 반부시투쟁은 노동자뿐아니라 각계 시민사회운동단체들, 전국민 모두가 떨쳐나선 반미투쟁으로써 이 땅에서 사상 최대의 대중적이고 범국민적인 투쟁이였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민중의 대중적인 투쟁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부시가 이 땅에 날아들었습니다.

왜 부시의 방한을 끝내 저지하지 못했는가. 정말 진지한 마음으로 돌이켜보게 됩니다.

노동자대중을 비롯한 온 국민의 투쟁열의가 부족했단 말입니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부시방한저지투쟁을 보면 대부분의 운동단체들이 각기 분산적으로 미국에 대한 분노의 감정을 즉흥적으로 분출했기 때문이라 하겠습니다.

노동운동단체들 **********. 그리고 이번 반부시투쟁에서 노동자대중의 적극적인 투쟁진출과 주도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지 않았는가하고도 생각이 됩니다.

이번 투쟁을 통해 모든 국민이 이해의 공통성을 갖는 반미투쟁을 하나로 묶어내고 보다 힘있게 추진해 나갈수 있는 강위력한 반미공동조직을 튼튼히 꾸리는 것과 함께 각 운동단체들이 고립분산적인 투쟁을 지양하고 범국민적인 운동조직의 깃발아래 하나로 굳게 뭉쳐야 배가의 힘과 위력을 발휘할수 있음을 잘 알게 되었다고 봅니다. 여기서 물론 대중운동에서 주도세력인 노동자대중이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야 합니다. 바로 이렇게 되었더라면 이번에 부시의 침략행각, 전쟁행각을 반드시 저지시켰을 겁니다.

부시의 방한이후 지금 이 땅의 자주민주통일실현투쟁에서는 더 큰 **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건 이땅에 기여든 부시의 발자국을 살펴보면 잘알수 있는 겁니다. 즉 미국의 채찍질이 노골화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미국이 집요하게 강요하고 있는 저들의 신자유주의경제침탈정책으로 이 땅에서 대량적인 구조조정, 정리해고가 예상됨에 따라 많은 실업자와 ***** 가정파탄이 낳은 방랑아, 유랑걸식자들이 산생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미국의 신자유주의경제침탈정책은 노동자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전반적인 부분에 급속히 확대됨에 따라 정말 예측하기 어려운 형국이 사회각지에 꼬리를 물고 산생하게 될 것입니다. 미국은 또한 대북강경론을 펴 고의적으로 한반도의 정세를 긴장시킬 것이며 핵무기와 같은 대량살육무기들을 이 땅에 마구 끌어들여 북침전쟁열을 고취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7천만 겨레가 지지하는 6.15공동선언이행의 앞길에 엄중한 장애가 조성되고 결국 전쟁밖에 터질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번 부시의 한국행각을 통해 드러낸 미국의 본심입니다.

우리 노동자대중은 이 엄중한 사태를 추호도 용납할수 없습니다. 우리 노동자대중은 마땅히 대중투쟁의 앞장에서 이번 반부시투쟁으로 고양된 반미투쟁을 더 높은 반미투쟁으로 승화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시대와 역사의 부름이며 나라와 민족앞에 지닌 노동자대중의 막중한 책무인 것입니다.

1300만 노동형제여러분 농민, 청년학생들을 비롯한 이 땅의 각계 민중과 어깨겯고 당면한 생존권쟁취투쟁 등 모든 대중투쟁을 반미투쟁에로 지향시키고 거족적인 반미투쟁의 봄우뢰를 터쳐 나갑시다.

도청기사건이 보여주는 것

노동자 농어민 시간 - 2월 20일~22일

얼마전에 한 노동운동가의 집에서 발견된 도청기사건으로 지금 노동계 아니 온 국민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엔 경남 창원 대우차노조에서 일하고 계시는 장영진씨가 보내온 글 ≪도청기사건이 보여주는 것≫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얼마전 민주노총간부의 집에 고성능 도청장치가 설치돼 있는 것이 발견되어 노동계의 커다란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알려진 것처럼 지난해 12월 23일 이승필 전 금속노조위원장의 집에서 소형도청기가 발견됐다.

이것은 오늘날 노동운동말살을 위한 당국의 탄압책동이 어느 지경에 이르렀는가를 보여주는 산증거로 되고 있다.

당국에서는 노사간의 평화협정체결이니 뭐니하면서 올해를 그 무슨 노사평화의 해로 만들어나가겠다고 떠들어대고 있다. 그러나 당국에서 떠들어대고 있는 노사평화협정체결이라는 것은 사실상 노동대중을 기만하기 위한 하나의 제스춰에 불과하다는 것이 이번 도청기사건을 통해서 명백히 드러나게 되었다.

원래 노동운동에 대한 말살책동은 어제 오늘에 시작된 일이 아니다. 이 땅에서 노동대중이 자기의 참다운 권리를 쟁취하고 지키기 위해 벌여온 노동운동은 그 시작부터 걸음걸음 당국의 말살책동을 분쇄하면서 전진해온 투쟁의 역사였다.

선대 독재시절부터 시작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어느 하루도 노동운동에 대한 탄압과 말살책동은 그친 날이 없다. **********했다. 바로 도청기사건이 이를 잘 말해준다 하겠다. 앞에서는 웃으며 손을 잡자고 하고 돌아앉아서는 피를 물고 노동운동을 말살하기 위해 별의별 짓을 다하고 있는 검질기고 악착하고 교활한 것이 당국의 노동운동탄압책동이다.

이에 우리 노동운동가들과 노동대중은 일층 각성하여야한다. 우리 나라 속담에 ≪지어먹은 마음 사흘 못간다≫는 말이 있다.

당국은 지금 지방선거와 대선을 앞에 두고 있고 또 월드컵 등을 무난하게 치뤄내기위해 속임수를 쓰고 있다.

지나온 한국의 노동운동역사를 봐도 그렇고 또 오늘날의 현실을 봐도 그렇고 당국이 노동운동을 탄압하고 말살하려는 본심은 절대로 변하지 않았고 또 변할수도 없다. 이것이 바로 오늘의 도청기사건이 보여주는 교훈이라 하겠다.

우리 노동운동가들과 노동대중은 이를 똑바로 알고 당국의 노동운동말살책동을 힘찬 투쟁으로 단호히 짓부셔버려야한다. 그렇게 해서 자기들의 권리를 찾고 지키기 위한 노동운동이 자그마한 이탈도 없이 진전해 자기의 사명을 원만히 수행해야 할 것이다.

조선중앙통신

주체 91(2002)년 2월 23일

조선대표 평화유지 활동에서 지켜야 할 원칙적문제에 언급

12일 유엔평화유지작전에 관한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조선대표가 연설하였다.

대표는 연설에서 오늘의 현실은 평화유지활동이 국제공동체앞에 지닌 자기의 사명과 역할을 다할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맞게 자기의 주요 활동원칙을 시종일관 견지할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와 관련한 몇가지 문제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첫째로, 국제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데서 평화유지작전도 필요하지만 온갖 불화와 충돌을 낳는 화근부터 제거하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 화근은 바로 랭전시대의 사고방식과 대결정책에 있다. 이로부터 국제관계에서 대결정책의 표현인 지배주의와 패권주의, 일방주의가 허용되지 말아야 하며 분쟁을 조장하거나 부추기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둘째로, 평화유지작전이 유엔헌장의 원칙과 목적에 부합되게 나라들의 자주권존중과 령토완정, 내정불간섭의 원칙을 존중하는 기초우에서 진행되도록 하는것이 또한 중요하다.

여기에서 필수적인 문제는 평화유지활동이 성원국들의 기대에 맞게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는데 실질적으로 기여하도록 하는 방향에서 전개되고 진행되도록 하는것이다.

셋째로, 평화유지작전의 간판을 쓰고 불순한 정치군사적목적을 추구하는 시도들이 제거되여야 한다.

지난 50여년간의 력사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를 위한 유엔의 활동은 많은 경우 특정한 나라들을 반대하는 정치군사적목적실현에 도용되였으며 그 잔재는 아직도 남아 있다.

그 대표적실례가 조선반도의 현실이다.

대표는 모든 유엔성원국들이 미국으로 하여금 남조선에서 유엔의 신성한 이름과 기발을 도용하는것을 더 이상 허용하지 말고 이를 종식시키기 위한데 응당한 주의를 돌려 주리라는 기대를 표명하였다.

≪21세기의 태양 김정일총비서≫ 주체사상국제연구소 명예리사장 집필

2.16에 즈음하여 주체사상국제연구소 명예리사장 이노우에 슈하찌가 쓴 도서 ≪21세기의 태양 **김정일**총비서≫가 출판되였다.

도서는 머리말, 제1편 **김정일**총비서-주체위업의 위대한 계승자, 제2편 **김정일**총비서-사상리론의 영재, 제3편 **김정일**총비서-강성대국을 건설하시는 령도의 거장, 제4편 **김정일**총비서-조선의 자주통일의 령도자, 맺는말로 구성되여 있다.

필자는 머리말에서 오늘 **김정일**총비서께서 령도하고 계시는 조선의 참모습을 아는것은 시대의 요구이라고 하면서 책은 이러한 시대의 요구에 대답하며 **김정일**총비서의 탄생일을 축하하기 위하여 집필한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는 맺는말에서 21세기는 **김정일**시대로 더욱 빛을 뿌릴것이며 인류의 자주위업은 **김정일**총비서의 령도로 승리의 한길을 따라 전진할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남조선인민들의 반미투쟁 지지 3대륙인민단결기구

아시아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인민단결기구 총서기 후안 까레떼로 이바네스가 반미, 반부쉬투쟁에 떨쳐 나선 ≪한민전≫과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을 지지하여 평양에서 담화를 발표하였다.

담화에서 그는 부쉬의 ≪악의 축≫망언과 침략적인 서울행각을 계기로 벌어 지고 있는 남조선인민들의 반미, 반부쉬투쟁에 전적인 지지성원을 보낸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반세기 이상이나 분렬과 상실의 아픔을 강요하고도 모자라 모처럼 마련된 민족화해와 단합에 걸음마다 찬물을 끼얹는 미국에 대한 조선민족의 원한과 분노는 하늘에 닿고 있다. 자기의 리익을 위해 남을 희생시키는것을 국가정책으로 삼는 미국의 일방주의적인 패권정책의 조선반도판이 바로 부쉬행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대조선침략전쟁책동이다.

미국은 시대에 역행하는 대조선적대시정책과 조선반도영구분렬책동을 걷어 치우고 남조선에서 침략군과 살인무기들을 당장 철수시켜야 하며 조선민족의 자주적인 통일진군을 가로 막지 말아야 한다.

나는 전 세계 반제자주력량과 평화애호인민들이 패권에 눈이 어두워 세계평화를 엄중히 위협하고 있는 미국의 전횡에 높은 경각성을 가지고 견결히 대항해 나서며 6.15공동선언리행에 떨쳐 나선 조선민족의 통일투쟁에 아낌 없는 지지와 련대를 보내줌으로써 반제자주위업과 세계평화위업에 적극 기여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한다.

≪조국애와 조선에 대한 생각≫ 네팔에서 출판

위대한 **김정일**령도자의 탄생일에 즈음하여 네팔에서 왕국정부인민복리리사회 위원장 나레쉬 만 사끼야가 집필한 도서 ≪조국애와 조선에 대한 생각≫이 출판되였다. 도서는 머리글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관심≫, ≪위대한 령도자의 위대한 나라≫, ≪군사를 중시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네팔-조선친선관계≫ 등 제목의 글들로 구성되여 있다. 몇해전 조선을 방문하였던 필자는 머리글에서 조선의 위대한 수령께서와 위대한 령도자께서 지니신 조국과 인민에 대한 무한한 사랑, 수령과 령도자를 진심으로 따르는 인민의 사상감정, 혁명과 건설에 자신들을 아낌없이 바쳐 가고 있는 조선인민의 숭고한 조국애 등은 자기에게 있어서 난생 처음 보고 느낀 감동적인 세계였다고 썼다. 필자는 도서에서 **김정일**령도자의 현명한 선군령도밑에 수령, 당, 대중의 일심단결이 확고히 마련되고 조선인민의 조국애와 영웅적투쟁에 의하여 제국주의자들의 고립압살책동이 분쇄되고 여러 분야에서 커다란 성과가 이룩된데 대하여 구체적인 자료를 들어 상세히 서술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는 민족자주통일운동의 위대한 령도자

로동신문

≪로동신문≫ 23일부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서 조국통일3대원칙과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을 제시하심으로써 조선민족은 자주통일을 위해 변함없이 틀어 쥐고 나가야 할 불멸의 통일헌장, 필승의 지도적지침을 받아 안았다고 지적하였다.

론설의 필자는 위대한 수령님의 뜻과 유훈을 높이 받들고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조국통일위업을 계승하여 우리 대에 기어이 조국을 통일해야 한다는것이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의지이라고 지적하고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높아가는 민족의 통일열망과 북남관계발전의 절박성을 깊이 헤아리시고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민족대단결사상과 애국애족의 뜻을 그대로 담은 민족대단결 5대방침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담력과 의지에 의해 드디여 력사적인 평양상봉과 북남최고위급회담이 진행되고 장군님의 자주통일사상과 의지를 담은 6.15북남공동선언이 발표되였다.

6.15북남공동선언은 자주통일시대의 앞길에 세워 진 빛나는 리정표이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북남공동선언을 통해 ≪우리 민족끼리≫라는 자주통일의 대명제를 제시해 주심으로써 우리 민족은 자주통일운동의 귀중한 종자를 받아 안게 되였다.

우리 민족끼리 통일한다는것은 민족자주정신과 함께 민족대단결의 의미도 담고 있다. ≪우리 민족끼리≫라는 대명제자체가 민족대단결을 요구한다.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한 령도가 있고 자주통일의 리정표인 북남공동선언이 있으며 그 기치 따라 나아가는 민족의 단합된 힘이 있어 조국통일위업은 필승불패이다.

미국의 침략책동이 강화될수록 혁명무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

로동신문

미국대통령 부쉬는 최근에도 ≪악의 축≫이라는 말을 곱씹어대면서 우리 공화국의 ≪대량살륙무기개발≫을 걸고 들며 우리가 ≪미국의 생활방식을 위협하는것을 허용하지 않을것≫이라고 폭언하였다. 체이니, 람스펠드, 라이스, 테네트 등 부쉬정권의 고위인물들도 이에 맞장구를 치며 전쟁열기를 돋구고 있다.

23일부 ≪로동신문≫은 이와 관련한 개인필명의 론평에서 이것은 우리 나라에 대한 악의에 찬 시비중상이며 힘으로 우리를 압살하려는 로골적인 침략전쟁의식의 발로이라고 지적하였다.

론평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저들은 대량살상무기를 휘둘러대며 다른 나라들을 위협공갈하고 지배해도 되지만 우리는 자위를 위한 어떠한 군사적조치도 취해서는 안된다고 하는것은 날강도의 론리이다.

우리를 압살하려는 미국의 침략책동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우리는 혁명무력을 더욱 강화하고 나라의 군사적진지를 백방으로 다져 나갈것이다. 그 누구도 이에 대해 시비할 권리가 없다. 미국이 우리의 정당한 조치를 ≪악의 행동≫으로 규정하고 우리에게 횡포한 침략위협을 가해 나서고 있는것은 파렴치하고 날강도적인 행위이다.

명실공히 미국은 악의 제국이다.

우리에 대한 미호전세력들의 광신적인 행동이 가져 올것은 전쟁뿐이다. 우리는 미국이 부당한 구실을 내대고 조선에서 새로운 침략전쟁을 도발한다면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침략자들을 이 땅에서 완전히 쓸어 버릴것이며 조국통일위업을 실현하고야 말것이다.

미국은 무모한 군사적압살기도를 버려야 한다

재일본조선류학생동맹

사회주의조국에 체류하고 있는 재일본조선류학생동맹 중앙상임위원회 박영치위원장은 우리 공화국에 대한 부쉬의 무분별한 망발을 규탄하였다.

그는 얼마전 부쉬가 국회에서 한 ≪일반서신연설≫이라는데서 우리 나라에 대하여 ≪악의 축을 이루고 있는 나라≫라느니,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정권≫이라느니 뭐니 하는 악담을 늘어 놓은것은 우리 공화국의 존엄과 자주권에 대한 엄중한 도전으로 된다고 단죄하였다.

미국은 그 무슨 ≪악의 축≫에 대해 론의할 자격부터 없는 나라이라고 하면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악의 축을 이루는 나라는 다름아닌 미국이다.

자기들이 저지른 죄악은 한사코 부정하면서도 존엄 높은 우리 공화국에 ≪악≫의 감투를 씌우려는 미국의 책동은 무엇으로써도 합리화될수 없다.

미국대통령이 직접 정책연설을 통하여 우리 공화국에 대해 공개적으로 침략위협을 가해 나선것은 근래의 조미관계에서 보기 드문 일이다.

이것은 사실상 우리 공화국에 대한 선전포고나 다름이 없다.

미국이 그 어떤 위협이나 군사적폭력으로 우리 공화국을 굴복시킬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오산이다.

한다면 하는 기질을 가진 우리 군대와 인민은 감히 헛나발을 불어 대며 달려 드는 침략자들을 철저히 소멸할것이다.

미국은 우리 공화국의 기상과 의지를 똑바로 보고 무모한 군사적압살기도를 버려야 한다.

여러나라 2.16특집

2월의 명절에 즈음하여 세계 5대륙의 수많은 나라 신문들이 위대한 **김정일**령도자의 초상화와 혁명활동사진들을 모시고 특집하였다.

로씨야신문 ≪쁘라우다≫ 2월 15-18일부는 ≪축하합니다 **김정일**동지≫라는 제목밑에 특집하였다.

신문은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령도자이신 **김정일**동지께서 탄생하신 2월 16일은 세계 모든 진보적인류가 뜻 깊게 경축하고 있는 공동의 명절이라고 썼다.

로씨야신문 ≪모스꼽스끼 꼼무니스트≫는 ≪동방에 솟아 오른 태양≫이라는 제목밑에 경애하는 장군님의 혁명활동략력과 그이께서 가장 어려운 시기에 당과 국가, 군대를 령도하시여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을 옹근 한면에 걸쳐 실었다.

수리아신문 ≪알 우쑤부우 알 리야디≫ 1월 28일부는 ≪조선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각하의 탄생일에 즈음하여≫라는 제목밑에 옹근 2면에 걸쳐 특집하였다. 도이췰란드신문 ≪디 로테 파네≫ 2월호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혁명활동략력을 옹근 한면에 걸쳐 게재하였으며 탄자니아신문 ≪우후루≫ 7일부는 ≪21세기와 조선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이라는 표제밑에, 인디아신문 ≪인디아 유럽 뉴스 앤드 인포메이션 뷰로≫ 2월호는 ≪세계는 위인을 칭송한다≫라는 제목밑에 각각 옹근 한면에 걸쳐 특집하였다.

라오스신문 ≪빠싸손≫은 ≪**김정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정치원로≫, 캄보쟈신문 ≪인민≫ 8일부는 ≪조선의 선군정치≫, 인도네시아신문 ≪꼬란 뗌뽀≫는 ≪실력가형의 령도자≫, 이란신문 ≪카이한 인터내슈널≫ 13일부는 ≪다재다능한 령도자 **김정일**각하≫라는 제목의 글들에서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성을 높이 칭송하였다.

자주적발전에 관한 전국토론회

주체사상과 방글라데슈의 자주적발전에 관한 전국토론회가 8일 방글라데슈주체사상연구소의 주최로 다카에서 진행되였다.

방글라데슈인민련맹 위원장이며 아시아지역주체사상연구소 집행리사장인 가리브 네와즈는 토론회에서 한 보고에서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인민대중이 자주성을 위한 투쟁에 떨쳐 나서고 있는 시대의 요구를 통찰하시고 위대한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였다고 지적하였다.

김일성주석께서 개척하신 자주위업은 조선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각하에 의하여 빛나게 계승되고 있다고 하면서 보고자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김정일각하께서는 제국주의자들의 음모로 말미암아 자주위업이 시련을 겪고 있을 때 불면불휴의 사상리론활동으로 자주성을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에서 나서는 절박한 문제들에 전면적이고도 과학적인 해답을 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사회주의는 과학이다≫,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할데 대하여≫를 비롯한 고전적로작들에서 제국주의자들의 도전을 물리치고 자주위업, 사회주의위업을 전진시키기 위한 근본원칙과 방도들을 제시하여 주시였다.

그는 나라의 자주적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정치에서 자주의 원칙을 확고히 지키고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자립경제를 건설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부쉬의 망발을 규탄

인디아 공동성명

조선통일지지 아시아지역위원회와 조선통일지지 인디아위원회, 전인디아조선친선협회가 부쉬의 망발을 규탄하여 7일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부쉬가 대통령의 정책연설이라는데서 자주적인 주권국가인 조선을 군사적으로 덮쳐보려는 무모한 기도를 드러 내놓은것은 사실상 조선에 대한 선전포고나 다름이 없는것으로서 세계 여러 나라들과 평화와 진보를 사랑하는 전세계인민들의 한결 같은 분노와 규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타격≫의 선택권은 미국에만 있는것이 아니며 조선인민을 포함한 정의와 진보를 사랑하는 세계인류의 힘은 무궁무진하다고 성명은 지적하였다. 성명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각하의 현명한 선군령도밑에 조선인민이 미국의 무분별한 고립압살책동을 여지없이 짓부셔 버리고 조선민족의 념원인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리라고 전적으로 확신하면서 그들의 투쟁에 굳은 련대성을 표시한다고 지적하였다.

수령결사옹위는 강성대국건설의 위대한 기치

로동신문

≪로동신문≫ 22일부는 오늘 우리의 강성대국건설위업은 내 나라, 내 조국을 사상과 정치, 군사와 경제, 문화의 모든 면에서 무적필승의 힘을 지닌 세계적인 강대국으로 만들기 위한 새로운 높은 단계의 21세기 조국건설위업이라고 지적하였다.

론설의 필자는 우리가 건설하는 강성대국은 천만군민이 수령결사옹위정신으로 굳게 뭉친 위대한 일심단결의 나라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령도자와 군대와 인민이 하나의 사상, 하나의 의지로 굳게 뭉친 단결의 힘앞에서는 제국주의자들의 그 어떤 사상문화적침투책동이나 군사적위협공갈, 경제봉쇄도 맥을 추지 못하는 법이다. 일심단결이자 강성대국이다.

오늘 세계에는 대국이라고 자처하는 나라들이 적지 않지만 지구상을 휩쓰는 그 어떤 정치파동에도 끄떡없이 제국주의초대국과 당당히 맞서 싸우며 존엄떨치는 나라는 우리 나라밖에 없다.

론설은 우리의 일심단결이 그 어떤 힘으로도 깨뜨릴수 없고 그 어떤 원쑤도 당해 낼수 없는 불패의 단결로 되고 있는것은 수령결사옹위정신에 의하여 형성되고 공고발전되는 단결이기때문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지난 반세기동안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은 우리 공화국을 압살하기 위한 책동을 끊임없이 벌려 왔다. 특히 20세기 90년대 후반기 우리 인민이 겪은 ≪고난의 행군≫, 강행군은 우리 혁명력사에서 그 류례를 찾아 볼수 없는 일대 시련의 시기였다.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이 악랄해지고 생활이 어려워 질수록 경애하는 장군님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 사회의 일심단결은 더욱 억세여 지고 순결해 졌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혁명의 수뇌부를 목숨으로 사수하자≫, 이것이 바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신념이고 의지이다.

만약 그 어떤 원쑤가 감히 우리 혁명의 수뇌부의 안전을 해치려 든다면 지구상 그 어디에 있든지 무자비한 철추를 안기고 끝까지 짓뭉개버리려는것이 우리 군대와 인민의 삶의 좌우명이라고 론설은 강조하였다.

병사들을 사랑하라

이전 쏘련군 대장 글 발표

이전 쏘련군 대장 엔. 게. 랴쉔꼬가 로씨야신문 ≪빠뜨리오뜨≫ 제6호에 ≪병사들을 사랑하라≫라는 제목의 글을 발표하였다.

필자는 글에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는 인민군부대들을 자주 시찰하시는데 그 대부분은 군사분계선에서 멀지 않은 최전연초소들에 대한 시찰이라고 지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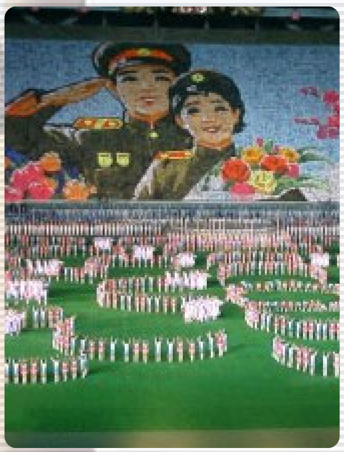
필자는 **김정일**장군님께서 조선인민군 병사들과 미군병사들이 직접 총구를 맞대고 있는 판문점과 조선서해상의 작은 섬초소 방위자들도 찾으신데 대하여 썼다.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늘 ≪병사들을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계신다고 하면서 필자는 이 가르치심의 숭고한 뜻의 근저에는 병사들에 대한 위대한 사랑과 은정이 놓여 있으며 이것은 총 잡은 병사들에 대한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수령과 사상과 뜻을 같이 하는 혁명전우들에 대한 믿음이라고 지적하였다.

필자는 모든 전사들을 한 식솔처럼 여기시며 언제나 그들을 돌보시는 **김정일**장군의 사랑이야말로 병사들의 무궁무진한 힘과 용감성의 원동력이라고 강조하였다.

필자는 정녕 이 세상에는 자기의 최고사령관과 나라의 운명도 개인의 기쁨도 함께 나누며 조국의 미래에 대한 책임도 함께 걸머지고 군사복무를 하고 있는 조선인민군 병사들보다 더 행복하고 긍지 높은 군인들은 없을것이라고 썼다.

만일 혁명의 운명, 민족의 운명을 판가리하는 준엄한 시기에 령도자께서 투쟁의 선두에 결연히 나서신다면 백만대군이 떨쳐 나 그이를 따를것이며 그 길에서는 언제나 승리만이 빛날것이라고 필자는 강조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고난의 행군, 강행군 영도의 역사적 지위

≪특강≫ 역사에 길이 빛날 선군 영장의 고난의 행군, 강행군 영도 제1회
학사 리종욱선생 - **김일성**종합대학 방송강좌 주체91, 2월 23일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역사에 길이 빛날 선군영장의 고난의 행군, 강행군 영도≫이라는 제목으로 매일 한번씩 37회에 걸쳐 특강을 해 드리겠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고난의 행군, 강행군 시기에 이룩하신 불멸의 영도업적을 크게 6가지 체계로 나누어 취급하게 됩니다.

첫째로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수령영생위업을 빛나게 실현하기 위한 사업을 조직영도하신데 대해서, 둘째로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독창적인 선군정치방식을 확립하신데 대해서, 셋째로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사회주의정치사상적 진지를 철벽으로 강화하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조직영도하신데 대해서, 넷째로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인민군대를 무적필승의 강군으로 키우시고 나라의 군사력을 백방으로 강화하신데 대해서, 다섯째로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사회주의경제강국건설의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조직영도하신데 대해서, 여섯째로는 조국통일의 전환적 국면을 마련하기 위한 투쟁을 조직영도하신데 대해서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선군혁명영도로 우리 인민을 승리의 한길로 이끄시여 이룩하신 중요 업적들에 대해서 학습하게 됩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우리 인민이 앞으로도 준엄했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 어떻게 어려운 난국을 타개하였는가 하는 것을 잘 알아야 한다고 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당이 오늘의 준엄한 난국을 어떻게 타개하였는가 하는 것을 먼 훗날에 가서도 알 수 있도록 역사를 잘 기록하여 놓아야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지적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우리 민족의 역사에서 그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시련과 난관이 겹쌓인 고난의 행군, 강행군를 승리에로 영도하시여 우리의 사회주의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수호하시었으며 우리 조국의 영예를 다시 한번 온 세상에 떨치시였습니다. 인류사에 그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어려운 난관과 시련이 겹쌓였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 시기 경애하는 장군님의 영도따라 힘차게 전진해온 우리 인민의 투쟁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대해서 깊이 인식하는 것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진두에서 지휘하신 것이 가지는 역사적 지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번 특강의 서론 강의로써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고난의 행군, 강행군 영도의 역사적 지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난의 행군, 강행군이라고 할때 그것은 주체83(1994)년 7월, 어버이 수령님께서 서거하신 이후부터 6년 사이의 기간을 말합니다. 이 6년간의 기간을 특징지워서 말씀드린다면 평범하게 흘러간 50년, 100여년 세월에 비길 수 없는 가장 성스러운 기간이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에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생사기로에 놓인 우리 민족의 운명을 수호하셨고 제국주의연합세력의 공격으로부터 우리 사회주의조국을 지켜내시고 강성대국건설의 튼튼한 도약대를 마련하셨습니다. 어려운 난국을 과감히 뚫고 승리적 전진만을 안아오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선군영도는 역사에 금문자로 아로새기고 영원히 받들어 나가야 할 가장 숭고한 높이에 이른 위대한 영도입니다. 바로 여기에 경애하는 장군님의 고난의 행군, 강행군 영도의 역사적 지위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나라에서 고난의 행군, 강행군 시기에 어떤 준엄한 난관과 시련이 거듭되였고 그것이 어떻게 극복되어 어떤 위대한 기적을 낳았는가 하는 것을 고찰해 볼 때 잘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이 기간에 준엄한 난관과 시련이 거듭된데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기간에 우선 우리 인민이 수천년 역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하고 높이 모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서거하셨습니다. 주체83(1994)년 7월 8일, 어버이 수령님께서 서거하셨다는 청천벽력 같은 비보에 접한 우리 인민들은 너무 억이 막혀 가슴을 쥐어뜯고 땅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이때로부터 만 3년동안 온 나라 전체 인민이 상주가 되어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시했습니다. 인류 역사에는 문상기간을 옹근 3년으로 정하고 서거한 위인을 추모한 그런 인민을 더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 3해 동안이나 온 나라 남녀노소 전체인민이 마음의 상복을 벗지 않고 애도의 정을 표시한 적은 일찍이 없었습니다. 이 기간에 또한 우리 인민은 민족사에 일찍이 없었던 준엄한 시련을 겪었습니다. 우리 인민이 대국상을 당한 것을 기화로 안팎의 원쑤들은 그 무슨 공대길을 떠들면서 우리 공화국에 대한 총공격에 나섰습니다. 그 역량상 볼 때 사회주의를 지켜선 우리 인민은 단독이였고 원쑤들은 제국주의연합세력과 사회주의배신자들이였습니다. 대결하는 역량상에서 이처럼 엄청난 차이가 있었을 뿐 아니라 원쑤들은 가장 교활하고 악랄한 수법과 수단을 총동원했습니다. 원쑤들은 군사적 위협과 공갈, 정치외교적 압력, 경제봉쇄, 추하기 그지없는 사상문화적 침투, 딸라뭉치를 어지럽게 내뿌리며 악착스럽게 감행하는 내부와해작전, 그것도 모자라 어용나팔수들을 내세워 당치도 않은 이른바 사회주의 붕괴설까지 들고 나왔습니다. 이러한 각양각색의 적들의 악랄한 공세에다가 유례없는 자연재해까지 연이어 겹쳐졌습니다. 우리 나라가 처한 시련은 단순한 어려움이 아니라 생사운명의 기로에 놓인 준엄한 시련이였습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에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시련과 난관이 겹쌓인 고난의 행군을 두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고난의 행군이란 말만 내어도 눈물이 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은 이처럼 어려운 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고난의 행군을 선군혁명영도로 진두에서 이끄시어 역사에 길이 빛날 불멸의 업적을 이룩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혁명 영도사는 40년이 가까워옵니다.

그 가운데서 지난 6년간의 고난의 행군, 강행군 영도사는 특별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우리 혁명이 가장 엄혹한 시련의 시기에서 고난의 행군, 강행군 시기에 붉은기를 높이 드시고 우리 사회주의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수호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우리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시던 처음부터 어버이 수령님을 가까이 모시고 우리 혁명의 노선과 정책을 함께 작성하셨고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크고 작은 모든 문제들을 함께 의논하시며 주체혁명위업을 전진시키셨습니다. 그러나 어버이 수령님께서 서거하신 이후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단신으로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승리에로 이끌어 오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이처럼 단신으로 우리 혁명을 영도하시면서도 동서고금에 이름 있는 정치가들이 한생을 바치면서도 이룩하지 못한 거대한 업적을 짧은 기간에 쌓아 올리셨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고난의 행군, 강행군 시기에 이룩하신 중요 업적만 보아도 어버이 수령님을 천세만세 영원히 높이 받들어 모시기 위한 수령영생위업을 빛나게 실현하신 것이며 독창적인 선군정치, 선군혁명영도로 사회주의 정치사상적 진지를 튼튼히 다지시고 나라의 방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주의 강성대국건설의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시고 조국통일의 새로운 전환적 국면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역사에 유례없는 엄혹한 난국과 도전을 쳐물리치시고 우리 인민을 승리에로 이끄신 고난의 행군, 강행군 기간의 혁명영도는 그 어떤 세계적인 대 정치풍파 속에서도 끄떡하지 않는 백두의 기상과 담력으로 생사존망의 갈림길에 놓였던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구원하신 절세의 위인의 위대한 영도업적으로 빛나고 있습니다.

제국주의연합세력의 악랄한 반사회주의, 반공화국 책동을 과감히 물리치고 강성대국건설의 튼튼한 도약대를 마련하시어 조국의 광명한 미래를 열어 놓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천출명장이신 우리의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만 이룩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셨습니다

≪나라를 찾는 싸움보다 피로써 쟁취한 혁명의 전취물을 지키고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투쟁이 더 어렵고 간고합니다. 문무충효를 겸비한 김정일동지만이 조국의 미래를 창창히 빛내일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교시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독창적인 선군정치를 펴시여 군사를 조국민족의 생명선으로 틀어쥐시고 적들의 광란적인 고립압살 책동을 단호히 짓부시고 사회주의조국을 굳건히 수호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몸소 인민들과 고난의 행군, 강행군 길을 함께 걸으시며 필승의 신념을 심어주시고 온 나라 전체 인민이 혁명적 군인정신을 따라 배워 강성대국건설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영도에 의해서 오늘 우리 인민은 준엄한 난관과 시련을 과감히 뚫고 승리자의 기세 드높이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의 힘찬 발걸음을 내디디고 있습니다.

이 시간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수령영생 위업을 빛나게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조직영도하신데 대해서 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어려운 난국을 과감히 뚫고
승리적 전진만을 안아오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선군영도는
역사에 금문자로 아로새기고
영원히 받들어 나가야 할
가장 숭고한 높이에 이른 위대한 영도입니**

빼앗긴 금메달, 오만한 부시

자주의 세기를 여는 당당한 발걸음 반미여성회(준) 2002년 2월 23일

지난 2월 21일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1천500m 결승전에 출전했던 김동성 선수가 심판의 부당한 판정으로 금메달을 놓쳤다.

1등으로 들어온 김동성 선수가 반칙을 했다며 심판이 실격을 선언한 것이다.

우리 국민은 TV를 통해 태극기를 휘날리며 환호하던 김동성 선수의 허탈한 표정과 안톤 오노(미국) 선수의 환호하는 표정을 지켜봤다.

한국 선수단은 즉각 항의를 했지만 국제빙산연맹은 판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23일 한국 선수단은 김동성 선수가 투스텝을 하여 뒤쫒아 오는 선수의 진로를 방해했기 때문에 실격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러나 김동선 선수가 투스텝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비

디오를 통해 이미 명백히 밝혀진 사실이다.

이처럼 부당한 판정이 명확한 데도 김동성 선수는 금메달을 놓쳤을 뿐만아니라 정정당당하게 승부하는 스포츠 정신을 저버린 비열한 행위를 한 것으로 낙인찍힌 것이다.

미국의 솔트레이크시티에서 벌어지는 이번 동계올림픽은 한국의 김동성 선수뿐만 아니라 러시아, 일본 등에서도 편파판정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금 세계는 9. · 11 테러이후 무차별 전쟁을 벌이는 미국에 대한 반미감정으로 들끓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이번 동계올림픽에서 미국인들의 애국주의를 자극하려는 미국의 정치적 의도가 이와 같은 무리한 판정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지난 2월 19일부터 21일까지 부시 미국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했다.

부시 미국대통령은 북을 공격한 의사가 없다고 하면서도 ≪악의 축은 이북주민이 아니라, 이북 정권이다≫, ≪이북 정권은 투명하지도 않고 굶주림을 방치하고 있으며 대량학살무기를 계속 만들고 있다≫, ≪그들이 악이라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전혀 이상할 게 없다≫고 했다. 그리고 북에 대해 미사일 수출을 중단하고 재래식 무기를 물리라는 요구를 했다.

우리는 세계 최대의 무기 장사꾼이 미국인 것을 알고 있다. 또한 94년 북미 제네바 회담, 2,000년 북미공동성명을 통해 핵과 미사일 문제에 대한 합의를 이행하고 있지 않는 것은 북이 아니라 미국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부시 미국대통령의 발언은 세계를 자신의 발밑에 두려는 오만한 발상이요 한반도를 전쟁전야로 몰아넣어 미국 무기를 강매하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이다.

김동성 선수의 금메달 박탈 사건을 지켜본 우리 국민은 부시 미국대통령이 강매하려고 하는 F15K 전투기를 사지 말라는 의견으로 국방부 홈페이지를 마비시켰다.

부시 미국대통령의 오만방자한 태도와 이번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 박탈 사건으로 우리 국민의 미국에 대한 분노는 끓어 넘치고 있다.

김동성 선수의 빼앗긴 금메달은 부시 미국대통령에게 짓밝힌 민족의 자존심이다.

반미여성회(준)은 금메달 박탈 사건을 규탄하고 부시 미국대통령의 한반도 전쟁고조 정책을 반대한다. 민족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온 국민은 미국반대, 전쟁반대의 목소리를 드높여야 한다.

부시 대북문제 한발짝도 물러서지 않아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동북아 3개국 순방의 일환으로 한국을 방문했을 때 대북문제와 관련해 자신의 입장에서 한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다고 콜린 파월 국무장관이 말했다.

워싱턴 포스트는 23일, 부시 대통령 귀로에 파월 국무장관이 대통령전용기 ≪공군1호기≫에서 회견을 갖고 ≪부시 대통령은 한국에서 자신이 이북에 대해 느끼거나 믿고있는 소신에서 한발짝(one inch)도 뒤로 물러서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파월 장관은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언급,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부시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상당부분을 한반도 통일의 중요성을 설명하는데 할애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신문은 김 대통령이 부시 대통령의 이북에 대한 강경 발언으로 한미정상회담에 앞서 상당한 우려와 당혹감을 느꼈다고 보도했다.

파월 장관에 따르면 김 대통령은 ≪모든 한국 사람은 남이건 북이건 모두 한민족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에 부시 대통령은 김 대통령과의 회동이 끝난 뒤 종국적인 남북통일을 위한 조치로 자신은 이북과의 대화를 지지한다고 밝혔다고 파월 장관은 소개했다.

연합뉴스 2002/02/24

테러방지법안은 ≪간판 사기≫다

테러방지법안은 테러위협을 빙자한 ≪간판 사기≫이며, 테러방지와는 거리가 먼 ≪악의 법≫이다.

부시 미국 대통령의 ≪악의 축≫ 발언이나 지속적인 ≪대테러전쟁≫ 밀어붙이기는 전세계 평화 애호 세력뿐 아니라 미국의 동맹국으로부터도 비난을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대테러전쟁에 편승하여 테러방지법안을 졸속 처리하려는 것은 국민에 대한 테러행위이다.

테러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정치적 불안요인을 해소하고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것이 국회의 임무일진대 무슨 근거로 국정원의 막강 권력만 키우는 테러방지법안을 추진하려는가?

테러범죄에 대한 예방과 처벌은 현행법으로 충분하다는 데 국가인권위원회와 대한변호사협회 등은 의견을 같이 했다. 테러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기존의 형사법이 어디 한두 가지던가? 형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군형법, 항공법, 항공기운항안전법, 철도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원자력법, 전기통신사업법, 군사시설보호법,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범죄인인도법 등 부지기수다.

어디 그뿐인가. 일반적인 경찰과 검찰외에 대검찰청 공안부, 법무부 출입국관리국, 건설교통부 항공국, 관세청, 해양경찰청, 경찰청 경찰특공대, 국가정보원, 국군기무사령부 등 테러행위에 관한 정보의 수집, 분석 배포에서부터 테러행위의 예방과 진압, 수사와 처벌을 위하여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받은 국가기관이 수

두룩하다. 2002년 월드컵대회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과 안전대책위원회도 이미 존재한다.

반면, 이런 국가기관의 권력 남용으로부터 인권을 보호하고 침해된 인권을 구제하기 위한 법과 제도는 미흡하고 아쉽기만한 것이 현실이다. 경찰력의 행사는 이미 과도하며, 국가보안법 등 국제인권법이 보장하는 인권을 침해하는 법이 다수 존재한다. 이런 상황에서 테러방지법의 제정은 설득력을 가질 수 없다. 대테러대책기구의 비대 · 방만을 초래하여 테러대책의 효율성을 기대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국민의 인권보장에 적신호인 요소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테러방지법안이 규정하고 있는 테러 개념의 모호성은 가히 위협적이다. ≪정치적 · 종교적 · 이념적 또는 민족적 목적≫과 ≪그 목적을 추구하거나 그 주의 또는 주장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라는 요소를 범죄의 지표로 삼고 있다.

또한 ≪국가안보 또는 외교관계에 영향을 미치거나 중대한 사회적 불안을 야기≫한다는 역시 불확정하고 모호한 요소를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다. 테러방지법안의 태생적인 모호성은 집행기관의 자의적인 해석과 적용의 남용을 부를 것이다.

게다가 대테러대책기구의 중심을 장악하는 것이 국정원이다. 대테러활동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대테러센터≫를 그 자체 조직과 정원이 공개되지 않는 ≪국가정보원≫에 둘 뿐만 아니라 그 조직을 국정원장이 정하게 되어 있다. 물론 대테러센터의 조직과 정원도 공개하지 않을 수 있게 되어 있다.

또한 전반적인 법체계에 비추어 볼 때 대테러대책기구의 정점에 있는 국가대테러대책회의 운영 중심인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국정원장이 맡게 될 것이 확실하다. 국민의 감시로부터 은폐된 비밀조직을 대테러대책의 이름으로 국정원이 장악하여 주요 국가기관을 주무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온갖 비리와 공작, 인권침해의 대명사인 국정원의 권한 확대는 기름에 불을 붙이는 형국이 아닐 수 없다.

미국 주도의 ≪대테러전쟁≫에 일방 편승하고, 국정원의 전용무대를 개설할 테러방지법안은 즉각 폐기돼야 한다.

이주영기자
인권하루소식 2002/02/21

미국이여, 낙점하소서?

김민웅 (재미언론인)

대선을 흔드는 보이지 않는 손…정치권 내부에 친미 성향의 인물 육성 하기도

1945년 2차 세계대전 종전으로 미군이 한반도 남쪽에 진주한 이래 한국의 대권 결정 과정에 미국이 관여를 포기한 적은 단 한 차례도 없다. 역대 한국 대통령의 선출과 집권세력의 등장은 이러한 미국의 ≪공작 정치적 산물≫이거나 또는 그 위력에 힘입은 바 크다.

이승만 정권에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미국은 특히 한국의 지배세력에 ≪최종적인 결재권한을 가진 존재≫로 인식돼왔으며, 이 인식의 경계선에는 미국의 의도에 어긋나거나 저항하는 정치인 또는 정치세력은 살아남지 못한다는 판단이 끈질기게 버티고 있다. ≪미국 말을 들어라.≫ ≪미국에 덤비지 말라.≫ 그것이 대권을 겨냥한 인물과 세력의 금과옥조이다.

최종결재자의 미소는 무엇인가

해방공간에서 일어난 김구 선생을 비롯한 각종 정치적 암살의 배후, 그리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암살까지 포함해 미국의 직 · 간접적 영향력이 곳곳에서 확인 내지는 감지된다. 한국 정치의 대세를 가늠하는 길목에는 언제나 미국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져 있었던 것이다.

지난 50년 넘게 냉전시기에 미국은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세계 도처에서 자신의 이해를 대리하여 관철할 수 있는 인물과 세력을 물색한 뒤 옹립하고, 다른 한편으로 저항세력을 제거하는 ≪비밀공작≫을 수행해온 나라다. 가령 1972년 미국의 지원을 받은 피노체트에 의한 쿠데타로 칠레의 아옌데 대통령이 암살당하고 그가 이끌던 정권이 붕괴되었던 것은 그 대표적인 보기다. 옛소련 해체 이후 공산당의 정치적 복귀를 저지하고 러시아의 옐친 당선을 위해서도 미국은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으며, 선거기술 전문가를 지원했을 정도로 미국의 대권 관련 공작사례는 끝이 없다.

최근 ≪파이낸셜 타임스≫와 ≪워싱턴 포스트≫가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의 미국 방문과정에서의 발언과 움직임을 한국의 차기 대권 향방에 대한 부시 정권의 관리방식과 연결시켜 보도한 내용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관성적 행태를 보여주는 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이회창 총재 진영이 방미 이후 대단히 고무된 분위기 속에서 귀국할 수 있었던 까닭을 우리는 모르지 않는다. ≪대선≫이라는 거대한 정치변동 과정을 앞에 두고 ≪최종결재자의 미소≫가 무엇을 의미하게 될 것인지를 ≪즐겁게 예감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미국이 한국의 정치과정에 어떤 방식으로 개입해 들어와 자신들의 이해에 맞는 방향으로 관리하려 들 것인지를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추적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비밀공작≫이라는 작업의 성격 자체가 공개적 자료를 노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미 1947년 미 중앙정보국(CIA)의 제3세계 공작과 관련한 ≪국가안보협의회 비밀명령 NSC 10/2≫에는 미국 정부의 ≪관련부인≫(Plausible Denial)을 규정한 대목이 있어 공작의 실체규명과 그 책임소재 입증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쿠바의 혁명 수반 카스트로 암살시도에 대한 미국 정부의 관련이 다양한 경로로 드러났음에도 미국 정부가 이를 인정한 바는 아직 한번도 없다. 관련 부인의 원칙이 철저하게 지켜지고 있는 것이다. 정보자유법에 의한 비공개 자료의 판독도 2~30년 뒤에나 이루어질 수 있고 그나마 민감한 대목은 검은 줄로 지워서 공개되기 때문에 정확한 판독과 결론에 왜곡이 생길 여지가 있다.

정교한 인사파일 작성

하지만 ≪미국의 제국주의적 패권질서가 목적하는 바가 종국적으로는 한반도 전체에 대한 지배≫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면 그 수단인 비밀정치공작의 내용은 그런 대로 윤곽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 CIA가 미국의 패권체제를 확보하는 비밀공작기구라는 점을 주목하면 이는 자명해진다. 이 과정에서 미국이 한반도 주민들의 이해를 희생시켜서라도 자신의 요구를 관철할 수 있는 강력한 의지와 기반을 가진 세력의 집권을 실현하려할 것은 물론이다. 따라서 미국은 한민족의 자주성을 고취 · 옹호할 민족주의적 인사, 자본의 지배에 대한 계급투쟁의 정치세력화를 주도하는 인물과 세력은 철저하게 제거하는 쪽으로 사태를 몰아간다. 미국의 개입을 배제하게 될 ≪중립화론≫ 역시 미국은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 ≪자주적 한반도 중립화론≫은 그러한 의미에서 미국의 패권질서와 정면으로 충돌하게 되어 있다.

한마디로 미국의 지배가 한반도 지역에서 관철되는 과정에 미국에 최대의 적은 민족주의(자)와 사회주의(자)이며 해방공간에서 희생당한 인물들이 바로 이러한 맥락 속에 있었던 것을 떠올리면 미국의 정치공작 대상은 명료해진다. 미국의 선택을 기다리는 대권주자들은 민족의 자주와 정치 · 경제적 정의에 침묵하는 것이 따라서 상책이 된다.

그렇다면 미국은 어떤 방식으로 한국 정치를 관리하는가? 여러 가지 접근이 필요하겠으나 비밀공작정치의 기본유형을 통해서 간략하게나마 살펴보도록 하자.

우선 미국이 한반도에서 어떤 질서를 원하는가를 꾸준히 알리고 이에 호응해오는 세력을 포섭하고 이들 가운데 지도적 역량이 있는 자를 내심 지목하여 장기간에 걸쳐 육성하는 방식을 취한다. 군부 내 인맥의 장기적 육성은 그뒤 1980년대 신군부의 집권으로 이어졌고, 민간 정치인의 친미적 성향을 길러내는 일 또한 이러한 방식으로 이뤄졌다. 미국은 대상국가 내부의 정치권에서 자신이 주시하는 인물에 대해 짧게는 10년에서 길게는 30년의 시간을 두고 여러모로 관찰하고 음으로 양으로 지원하여 길러낸다는 것을 안다면, 미국의 공작정치가 가지고 있는 호흡의 길이를 우리는 깊이 염두에 두고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미국의 국내 비밀공작 제1차 작업은 철저하게 정보정치로 이뤄진다. CIA의 최우선적 기능은 여기에 있다. 이 작업을 통해 미국은 그들의 의사에 순응할 수 있는 세력과 인물들에 대한 정교한 인사파일을 작성하고 이와 함께 유사시 제거 내지는 진압해야 할 세력의 명단도 짜놓는다. 유력 정치인의 미국 방문과정과 기타 국내의 외교적 접촉을 통해서 그리고 각 정치집단 내부에 미국 정보원을 심어 한국 정치의 움직임을 매우 자세하게 파악한다. 특히 미국 정보원의 역할은 매우 다양하게 전개된다. 정치인을 비롯하여 언론인, 종교인, 지식인, 기업인 등 미국이 활용하는 정보자원은 무궁무진하다. 인도네시아의 수하르토가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미국은 그에게 제거대상 명단을 넘겨주어 무수한 학살을 자행했던 역사는 이러한 정보정치의 결과물이었다.

각종 비리사건 정보도 축적

정보는 이러한 인물평가 파일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각종 비리사건과 부패 연루, 기타 정치적으로 치명상을 줄 수 있는 내용들을 오랜 기간 축적해간다. 그리고 이를 필요한 때 적절한 회로를 통해 정세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공작한다. 한국의 대권주자들이 미국을 두려워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미국의 이러한 정보공작정치에 있다는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미국의 비밀 정보공작정치가 언론기관과 결탁되어 추진될 경우 그 파괴력은 매우 크다. 심지어 대통령이라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정보공작정치는 구시대 군사정권의 유물로만 판단해서는 오산이다.

돈문제가 미국이 한국 정치를 요리하는데 필수적인 장치라는 점은 분명하다. 경제봉쇄 위협은 다소 생소할지 모르나 이미 지난 1997년 금융위기의 처리 과정에서 국제통화기금(IMF)과의 협상을 놓고 내부적인 격론이 벌어졌을 때 미국쪽이 그들과 인맥을 가진 인사들을 통해 흘린 사안이라는 점을 환기할 필요가 있다.

진보진영 내부에도 그들의 움직임을 손바닥에 놓고 볼 수 있도록 미국의 정보원으로 길러진 인물들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정보원들이 각양각색의 방식으로 한국 정치의 내부를 들여다보고 있으리라는 점은 특히 대선과정에서 적지 않게 염두에 둬야 할 것이다. 적대적 정치세력간의 정보전보다 우리 민족 전체에 더욱 큰 위협은 바로 미국의 정보공작정치의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점을 새롭게 인식해야 할 것이다.

미국이 키운 정치인을 떼내라

언론은 미국이 가장 신경을 쓰는 공작정치의 수단이다. 미국에 유리한 기사와 논설을 게재하도록 평소의 인맥관계를 두텁게 할 뿐만 아니라 이로써 향후 대권주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미국의 입장을 옹호해야 할 것인지 논리를 제공하는 것이다. 인맥관계에서는 워싱턴 정가의 고위층과 인맥을 쌓고 과시하는 데 지원함으로써 국내 정치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번 이회창 총재의 방미과정은 그러한 대목을 압축해서 보여준 셈이라고 하겠다.

미대사관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미국의 내정간섭에 호응하는 세력, 특히 언론과 정치권 내의 세력에 대한 청산을 줄기차게 그리고 강력하게 벌여나가야 할 것이다. 2002년 대선은 그러한 우리의 정치적 결의가 좀더 구체적이고 집단적인 역량으로 힘차게 솟구쳐나와야 할 정치과정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언제까지나 미국의 지배 아래 정복된 나라의 주민처럼 살아가는 운명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울 것이다. 민족의 자주와 정치 · 경제적 정의를 부르짖는 인물과 세력이 한국 정치의 올바른 중심에 설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바로 이러한 미국의 제국주의적 식민통치의 전략 · 전술에 자발적으로 포섭되는 인물과 세력의 정치적 척결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확고하게 명심할 일이다.

철도, 발전, 가스 등 3사 노조 총파업 돌입

노정간, ≪민영화 반대≫ 등 핵심쟁점 사항 이견 못좁혀

노정 대타협 실패 철도,발전,가스 등 총파업

전국철도노조와 한국발전산업노조, 한국가스공사 노조 등 3개 공공부문 노동조합의 총파업이 25일 아침 4시부터 시작됐다.

25일 새벽 4시 30분 이들 3개부문 노동조합 위원장은 서울 명동성당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정부와의 노정 타협은 사실상 실패로 끝났으며 전면 무기한 공동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선언했다.

이어 파업 지도부는≪정부와 오늘 아침까지 최대한 협상에 들어갔으나 최종 합의를 보지 못하고 파업에 들어가게 돼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밝혔다.

지난 24일 오후부터 25일 새벽까지 서울 명동 로얄호텔 등지에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정부 관계자와 노정 대타협을 위한 협상이 진행됐지만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철회를 주장한 노조와 민영화는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정부와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못한채 노정간 극적 대타협이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오전 6시 현재 파업지도부는 명동성당 안에서 노조 사수대의 보호를 받으며 향후 대책을 논의하고 있지만 정부와 사용자쪽과의 협상은 중단된 상태다.

이어 명동성당과 서울대, 건국대 일대에는 전국에서 올라온 철도, 발전, 가스 노조 조합원 1만여명이 노정 대타협 결렬에 따른 파업 대책에 대비하고 있다.

이날 아침 인천과 수원 등지의 지하철 국철 일부 구간의 지하철 운행이 3분의 1로 줄어드는 등 차질을 빚고 있으며 전국의 열차 운행도 이날부터 사실상 멈춰설 것으로 보인다.

또 5개 발전회사를 비롯한 한국전력의 경우 간부 등 대체인력 6000명과 함께 비상근무에 들어갔지만 파업이 장기화 될 경우 전기와 가스 공급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이번 공공부분 파업에 강력히 대처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우선 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 등에 대책본부를 설치하고 대체 인력 투입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놓고 있으며 한국전력과 철도청 등 주요 기간시설에 경찰력을 늘려 배치해 놓고 있다.

이어 25일 오전중에 공공 노조 파업에 대한 국무총리 담화문을 발표하고 노조 파업 주동자 검거 등 강력 대처하기로 해 노조와의 마찰도 우려된다.

박수원/김종철 기자
오마이뉴스 2002/02/25

민주노총 노동자대회

민주노총(위원장 단병호)은 공공부문 파업 예정일을 하루 앞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산하 조합원 2만여명이 모인 가운데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었다.

민주노총은 결의문에서 △발전, 철도, 가스 등 기간산업 민영화 중단 △노동조건 후퇴 없는 주5일 근무제 도입 △단병호 위원장 등 구속 노동자 석방 등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공공부분 파업과 관련, ≪국가 기간산업의 마비에 따른 파장을 고려해 파업돌입 전까지 정부측과 최선을 다해 교섭을 벌일 것≫이라며 ≪하지만 기간산업 민영화 중단, 단체협약 체결과 해고자 복직 등 필수요구 사항이 관철되지 않으면 파업은 예정대로 강행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또 ≪주5일 근무제는 전면 실시돼야 하지만 이로 인해 중소영세 비정규직의 노동조건이 후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임시국회에서 휴일휴가 축소와 수당 폐지, 탄력근로제 등 정부의 노동법 개악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26일부터 140여개 사업장, 10만명의 노동자가 파업에 돌입한다≫고 경고했다.

집회에는 발전, 철도, 가스 등 3대 공공부문 노조원 1만6천여명이 참가했고 사회보험노조와 현대, 기아, 쌍용자동차, 한국중공업 등 대형사업장 노조원 4천여명은 마포구 공덕동 로터리에 집결, 마포대교를 거쳐 여의도 공원까지 행진을 벌인 뒤 집회에 합류했다.

집회가 끝난 뒤 조합원들은 ≪기간산업 민영화 저지≫, ≪노동조건 후퇴없는 주5일 근무제≫ 등의 구호를 외치며 국회의사당 앞까지 행진을 벌였다.

경찰은 집회장소와 주변도로에 68개 중대 7천여명을 동원했다.

이상훈 기자
연합뉴스 2002/02/24

두 개의 전선, 승리를 향한 일보전진 (8)

대표집필자 최성원 /2001년 5월말 발표

1.우리는 왜 이 글을 긴급토론자료로 제출하는가

2.민족민주전선의 세계성과 역사성

3.민족민주전선의 3대 강령과 조직문제

4.반제자주역량의 미군 철거투쟁과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

5.민중적 민주역량의 국가보안법철폐 투쟁과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

6.민족민주전선의 지역통일전선 구축사업

▶ 7.민족민주전선과 김대중정권의 관계문제

▶ 8.제안 -6.15공동선언 1주년 사업에 총력을 집중하자

7. 민족민주전선과 김대중정권의 관계문제 -2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민족민주전선이 화해・협력성을 실체로 인정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며, 화해・협력성을 상대하는 새로운 정치사업을 포치하여야 한다는 사실이다. 민족민주전선은 김대중정권의 친미예속성과 반민중성을 절대로 묵인해서는 안 되지만, 친미예속성과 반민중성을 집중적으로 타격하는 투쟁을 전면에 배치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왜 민족민주전선은 김대중정권의 화해・협력성을 상대해야 하는 것일까? 우리는 조선반도의 정세를 파악함으로써 이 물음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다.

조선반도의 정세는 미국, 친미예속정권, 남측 민족민주전선 3자 사이에서 결정되지 않는다. 그것은 북측, 미국, 친미예속정권, 남측 민족민주전선 4자 사이에서 결정된다.

이 4자의 관계 가운데 지금 조선반도 정세의 변화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두 말할 것도 없이 북측과 미국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관계의 변화다.

북측과 미국의 관계는 1945년부터 1998년까지 적대관계로 일관되어 있었지만, 1999년에 미국이 ≪페리 프로세스≫를 추진하게 된 뒤부터 적대관계와 협상관계가 중첩되더니 2000년 10월 조・미 공동성명을 채택한 뒤에는 차츰 협상관계가 우위에 올라서는 방향으로 이동하였다. 부시 정권으로 교체된 지금 북측과 미국 사이에 발생한 냉각관계는 비본질적인 현상에 지나지 않으며, 협상관계로 곧 복귀할 것이 분명하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점은, 이러한 북측과 미국의 관계변화가 북측과 친미예속정권의 관계에도 변화를 불러일으켰다는 사실이다. 오늘의 친미예속정권이 역대 친미예속정권들과 다르게 북측과 화해・협력을 추진하게 된 근본원인은 애초에 김대중정권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북측과 미국의 관계가 변화된 데 있었다. 북측과 미국의 관계변화가 친미예속정권의 대북 적대성을 약화시키면서 화해・협력성을 지니게 만든 것이다.

만일 북측과 미국의 관계가 협상관계로 변화되지 않았다면 김대중정권은 대북 화해・협력성을 지닐 수 없었을 것이 분명하다.

북측은 친미예속정권이 조선반도의 정세변화에 따라 지니게 된 새로운 성격, 곧 북측에 대한 화해・협력성을 통일전선으로 견인・포섭하였다.

돌이켜 보면, 북측은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을 상대로 해서도 통일전선을 구축하려고 하였으며 그 결과 조국통일의 3대 원칙을 담은 역사적인 7. 4 공동성명이 나올 수 있었다. 또한 북측은 광주학살의 주범 가운데 하나였던 노태우가 집권하고 있던 시절에 그 정권을 상대로 해서도 통일전선을 구축하려고 하였으며 그 결과 남북(북남)기본합의서가 나올 수 있었다.

박정희 정권이나 노태우 정권은 일반 민주주의적 개혁성도 없었고, 북측에 대한 화해・협력성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던 파시스트 정권의 전형이었다. 북측이 그러한 정권들을 상대로 해서도 통일전선을 구축하여 조국통일 3대 원칙과 남북(북남)기본합의서를 내오는 성과를 이룩했다면,

오늘 화해・협력성을 지니고 있는 김대중정권을 통일전선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그리하여 평양회담이 성사되고 6.15공동선언이 발표되어 남북(북남) 사이의 화해・교류・협력이 일정한 수준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올해에는 **김정일**국방위원장의 서울방문을 성사시키려 하고 있는 것이다. 만일 북측이 김대중정권을 타도대상으로 규정하였다면 2000년 6월의 역사적 사변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며 통일정세는 유리하게 전변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북측이 6.15공동선언 이후 김대중정권을 상대로 하여 통일전선을 구축하고 있는 현 정세에서 만일 남측 민족민주전선이 정권 퇴진투쟁을 전개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북측이 민족통일전선을 구축하는 사업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며, 결국 조국통일위업에 유리하게 전변되고 있는 통일정세는 흔들리게 될 것이다.

북측이 7. 4 공동성명을 발표하여 정세가 조국통일위업에 유리하게 전변되고 있었던 1972년에 당시 남측의 반독재 민주화운동세력이 만일 박정희 정권 퇴진을 구호로 내걸고 투쟁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러한 투쟁은 애초에 의도한 바와는 달리 통일전선을 구축하는 사업에 혼란과 장애를 조성하는 결과를 가져왔을 것이다. 박정희 정권 퇴진투쟁은 박정희 정권이 7. 4 공동성명을 부정하였을 때 전개해야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김대중정권 퇴진투쟁은 이 정권이 6.15공동선언을 부정하는 경우에 전개하면 되는 것이지 지금 전개해야 할 투쟁이 아니다. 문제는 조성된 정세에 맞는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족민주전선은 친미예속정권 퇴진투쟁을 전개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불필요한 논쟁에 말려들어서는 안 된다. 민족민주전선은 친미예속정권 퇴진투쟁을 전개할 것인가 아니면 6.15공동선언 실현을 위한 통일전선 구축사업을 전개할 것인가 하는 두 가지 방침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민족민주전선은 평양회담이 성사되고 6.15공동선언이 발표됨으로써 연방제 통일을 실현하는 데 유리한 전환국면에 들어서고 있는 지금 지역통일전선 구축사업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민족민주전선은 친미예속정권 퇴진투쟁이 아니라 6.15공동선언을 실현하기 위한 지역통일전선 구축사업을 전면에 배치하고 총력을 집중해야 한다.

6.15공동선언 이후의 현 정세에서 김대중정권 퇴진투쟁을 전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두 가지 문제를 알지 못하고 있다.

첫째로, 그들은 조선반도 정세의 역학구도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전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하는 정세관의 한계를 안고 있다. 그들은 조선반도의 정세가 남측 민족민주전선, 미국, 친미예속정권 3자 사이에서 결정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그들은 북측, 미국, 친미예속정권, 남측 민족민주전선 사이의 4자 관계에서 정세변화를 결정짓는 요인이 북측과 미국의 관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 그들은 북측의 반제자주역량을 논외로 치고 3자 관계를 분석한 나머지 민족민주전선과 친미예속정권의 적대관계를 중심에 놓고 정세를 파악하려는 오류를 저지르고 있다. 그러나 민족민주전선과 친미예속정권의 적대관계가 정세변화의 중심이 아니므로 그것을 중심으로 정세를 파악해서는 안 된다. 정세변화의 중심축은 북측과 미국의 관계에 놓여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강조할 필요가 있다.

둘째로, 현 정세에서 김대중정권 퇴진투쟁을 전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북측과 미국의 관계가 변화함으로써 북측과 친미예속정권의 관계가 변화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 민족민주전선과 친미예속정권의 관계도 변화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

정세변화의 중심축인 북측과 미국의 관계가 변화함으로써 북측과 친미예속정권의 관계는 기존의 적대관계에서 협상관계로, 그리고 평양회담과 6.15공동선언을 분기점으로 하여 통일전선의 관계로 더 전진하였다. 그러므로 남측 민족민주전선과 친미예속정권의 관계는 평양회담과 6.15공동선언 이전의 적대관계에 묶여 있어서는 안 되며, 이제는 6.15공동선언을 실현하기 위한 공조관계로 접어들어야 한다.

여기서 통일전선의 관계라는 개념이 아니라 ≪공조관계≫라는 개념을 쓰는 까닭은 김대중정권은 남측 민족민주전선의 통일전선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 정권을 상대로 하여 통일전선을 구축하고 있는 것은 북측의 정치역량이다.

민족민주전선과 김대중정권의 관계는 6.15공동선언을 실현하기 위한 공조관계로 설정되어야 한다. 6.15공동선언을 실현하기 위한 분야 이외에서는 공조관계가 성립될 수 없다. 공조관계라는 개념은 공동으로 돕는다는 뜻을 담고 있으므로, 그 개념은 민족민주전선과 김대중정권이 6.15공동선언이 실현되도록 상호협조한다는 뜻으로 해석해야 한다.

예를 들면, 1992년 9월 필리핀 정권의 철군파가 미군철수를 결정하였을 때 필리핀 민족민주전선은 친미예속정권에 대한 타도투쟁과 무력공격을 중지하고 그 결정을 지지・엄호하였다. 종래의 적대관계가 미군 철수를 위한 공조관계로 전환되었던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 남측 민족민주전선은 김대중정권에 대해서 퇴진투쟁이 아니라 6.15공동선언을 실현하기 위한 공조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민족민주전선과 김대중정권의 관계를 설정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타격과 협조의 병행론으로 정리할 수 있다. 친미예속성과 반민중성에 대해서는 타격을 가하고 화해・협력성에 대해서는 협조하는 양면전술이 그것이다. 타격과 협조를 병행한다고 말하면 막연한 논리가 되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두 가지 내용을 더 밝혀야 한다.

첫째, 타격의 수준을 조절해야 한다는 점이다.

타격에는 상대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완전히 제거하기 위한 전략적 타격이 있을 수 있고, 상대의 존재 자체는 인정하되 상대가 자기의 부정적 성격을 드러내지 못하도록 통제・봉쇄하기 위한 전술적 타격이 있을 수 있다. 지금 민족민주전선의 타격목표는 전자가 아니라 후자다. 그러므로 민족민주전선은 친미예속성과 반민중성에 대해서 전술적 타격을 가하되, 상대의 존재 자체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전략적 타격을 가하는 정권 타도투쟁이나 정권 퇴진투쟁을 전개해서는 안 된다.

둘째, 타격과 협조를 병행하되 선차성을 부여해야 한다는 점이다.

협조를 앞세우면서 타격해야 한다는 말이다. 만일 김대중정권이 화해・협력성을 폐기하면서 6.15공동선언을 부정하고 나선다면, 그때 가서는 민족민주전선은 마땅히 전략적 타격을 집중하면서 정권 타도투쟁, 정권 퇴진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8. 제안 6.15공동선언 1주년 사업에 총력을 집중하자

역사적인 6.15공동선언이 채택된 1주년이 다가오고 있다. 당면하여 민족민주전선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두 말할 필요도 없이, 7천만 겨레의 가슴에 화해의 감동과 통일의 신심을 안겨주었던 그 장엄한 역사를 되살려내야 한다. 수 백만, 수 천만 대중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대한 물결을 다시 불러일으켜야 한다.

그런데 지금 제국주의세력과 남측의 반통일세력은 6.15공동선언 자체를 파탄시켜보려고 별별 교묘한 술책을 동원하며 날뛰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족민주전선은 주저하지 말고 6.15공동선언 1주년 사업에 총력을 집중해야 한다. 시간은 촉박하다. 6.15공동선언 1주년 사업을 일회성 연례행사쯤으로 가볍게 생각하는 고정관념이나 안이한 태도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 사업은 민족통일전선을 촉진하는 운동기간의 첫 사업이 될 것이다. 그 사업은 6.15공동선언을 실현하기 위한 폭넓은 통일전선을 구축하는 조직・정치사업이다. 그 사업은 6.15공동선언을 실현하기 위한 남북(북남) 정당, 사회단체 사이의 다방면적 교류를 힘있게, 성대하게, 그리고 진공적으로 전개하는 사업이다. 그 사업은 **김정일**국방위원장의 서울 방문을 성사시키는 내용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민족통일촉진운동기간≫이 마감되는 2001년 8월 15일, 우리는 올해도 8.15 통일행사를 예견하고 있다. 올해의 8.15 행사는 예년의 통일행사와 달리 이 운동기간 동안 민족통일전선 구축사업을 승리적으로 결속짓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

만일 8.15 통일행사를 남북(북남) 정부당국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남과 북(북과 남), 해외의 정당, 사회단체들이 모두 참가하는 명실공히 전민족적인 공동행사로, 민족화해의 대축전으로 만든다면, 새 세기에 들어서 처음으로 맞이하는 8.15는 조국통일운동사에서 가장 뜻깊은 8.15가 될 것이다.

≪민족통일촉진운동기간≫에 민족민주전선의 모든 힘을 집중하여 임무를 완수하자. 승리를 향한 민족민주전선의 장쾌한 일보전진, 이것이 올해 여름을 구슬땀으로 수놓을 전선일군들의 투쟁목표다.

(끝)

하나 민족도 나

조국통일3대헌장

민족대단결과 연방제통일 방식에 관한 논의 (2)

나와 주체사상과의 대화

나: 연방제통일방안에 대한 이남의 ML론자들의 궤변을 분석하기 전에 먼저 연방제통일방안의 정당성에 대하여 요약해보았으면 합니다.

주: 그렇게 합시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제시하신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은 남과 북의 사상과 체제를 그대로 인정하고 용납하는 기초위에서 남과 북이 연합하여 연방공화국을 창립하는 방법으로 조국의 통일을 실현하자는 것입니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습니다.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은 통일국가의 전모와 그 실현방도를 밝힌 설계도이다.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에는 나라의 통일을 북과 남의 사상과 제도를 서로 용납하는 기초위에서 가장 공정하고 순조롭게 실현할 수 있는 기본방도가 제시되어 있다.

통일국가의 전모는 남과 북이 서로 상대방에 존재하는 사상과 체제를 그대로 인정하고 용납하는 기초위에서 남과 북이 동등하게 참가하는 민족통일정부를 내오고 그 밑에서 남과 북이 같은 권한과 의무를 지니고 각각 지역자치제를 실시하는 연방공화국을 창설하여 조국을 통일하자는 데서 명시되어 있습니다. 고연방국의 성격은 한마디로 말하여 민족자주이념을 가장 철저히 구현한 연방제민족국가라는 데 있습니다. 고연방국창립방안은 무엇보다도 외세에 의하여 인위적으로 분열된 조국을 통일하여 나라와 민족의 자주적인 통일적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연방국창설방안입니다. 고연방국창립방안은 또한 체제나 이념보다 민족의 통일을 더 귀중히 여기고 민족적 자주성의 실현을 최우선시하고 있는 애국애족의 통일방안이며 고연방국이 자주적인 민족연방국이라는 본질적 성격을 뚜렷이 내세우는 연방국입니다.

고연방국창립방안은 나라의 국호를 정하는 데서도 역사적 사실과 민족적 감정, 세계에 널리 알려져 있는 고려라는 이름을 살리고 남과 북의 민족, 민중이 공통적으로 지향하는 경치이념인 민주주의 이념을 살려 고려민주연방공화국으로 규정함으로써 통일국가가 자주적인 민족국가임을 성격적으로 특징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연방국은 그 어떤 나라의 위성국으로도 되지 않으며 그 어떤 외세에도 의존하지 않는 완전한 자주독립국가로, 블록불가담국가로 되어야 한다는 연방국의 존재방식과 특성규정은 기성의 중립국이나 기성의 중립화이론에 구애됨이 없이 완전히 독창적인 민족주체적인 중립화규정입니다.

고연방국창립방안은 조국통일의 지침인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에 기초하여 밝혀진 가장 정당하고 독창적인 통일방식입니다.

그리고 고연방국이 시행하여야 할 시정방침으로 제시된 고연방국의 시정방침은 우리 나라의 전영토와 전민족을 포괄하는 통일국가로서 남과 북의 온 민족의 근본 이익과 요구에 맞는 전략적 방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고연방국의 10대시정방침은 서로 다른 이념과 체제를 가진 단일민족의 자율형 연방중립국의 독창적인 헌장으로서 자주적인 정치, 민주주의와 민족대단결의 도모, 북남의 경제합작과 교류, 민족경제의 자립적 발전, 근로민중의 생활안정과 복리의 계통적 증진, 민족연합군의 조직과 외래침략으로부터의 민족보위, 해외동포들의 권리와 이익의 보호, 두 지역정부의 대외활동의 통일적 조정과 평화애호적인 대외정책의 실시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오늘 남과 북, 해외동포들은 물론 온 지구촌이 고연방국창립방안을 적극 지지찬동하고 있으며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 나서고 있습니다.